朝鮮日報
夕刊 十五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一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福榮部隊、平原占領後 長驅張庄을占據!

赤柴部隊는土橋街占據

【德州十四日發同盟】十四日 福榮部隊 一部는 津浦線上의 平原城을 占據하고 다시 長驅하야 正午頃 張庄을 占據하엿다 張庄은 平原 禹城 中間에잇다

【德州十四日同盟】我赤柴部隊는 十四日午後四時頃 馬頰河를 渡하야 큰抵抗을 밧지안코 土橋街를 占據하엿다 土橋街는 德州東南方 四里의 地點에잇는 一街이다

太原의咽喉部 忻口鎭陷落切迫

數次의敵大部隊逆襲을擊退

鯉登部隊、山西省境突破

【山西省原平鎭十四日發同盟】十四日 前面의 敵陣地一角을 占領한 我三浦○隊는 數回에 亘하야 敵大部隊의 逆襲을 바덧스나 果敢히 이를 完全히 激退하고 一方 ○○에 砲列을 敷한 我砲兵陣地는 山上의 敵陣地를 猛擊하야 猛烈한 砲彈을 퍼부어 篠原部隊는 五키로前進하야 高地에依據한 敵軍을 包圍하야 一擧에 殲滅戰을 行하엿다 我前面의 敵은 山西共産軍이며 忻口鎭陷落은 山西省의 首都太原의 咽喉部를 扼하는곳이라 必死의 抵抗을하고잇스나 同地陷落은 이미 目睫에 切迫되엿다

【天津十四日發同盟】平漢線의最右翼에잇서 石家莊攻略戰에 武勳赫赫하게 湯恩伯、衛立煌軍을 擊破한 鯉登部隊는 井陘을占領하고 疾風과가티벌서河北、山西省境을突破하고 閻錫山의 王城으로잇는 太原城으로부터 三十里地點을 急進中인데 部隊將士의 意氣는 全山西를삼킬듯한槪가잇다

蒙古軍도 歸化城에入城

【綏遠十四日發同盟】蒙古軍의快速部隊도 我快速部隊에 뒤이어 十四日午後六時四十分 歸化城에 入城하엿다 騎馬隊一千도 午後七時十分 蒙古旗를 飄揚하면서 馬謖을 先頭로 堂堂入城하엿다

歸綏西方 殘敵을急追中

【綏遠十四日發同盟】十四日朝 歸化城堅陣을 占領한 我快速部隊는 入城後(숨쉴새도업시) 殘敵을 空陸으로 急追하야 西方○○方面에 進擊을 開始하엿다

光輝잇는御使命을御終了 秩父宮兩殿下御歸國

今春 英國皇帝戴冠式에 天皇陛下의 御名代로 御參列、光輝잇는 御使命을 마치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松平式部長官以下를 隨伴하시고 十五日午後一時半 御乘船 氷川丸으로 橫濱에 御入港、御氣嫌御麗하시게 御八個月만에 御歸國하시엿다。兩殿下께서는 御旅中 燥陳하시게도 東西의 風俗을 御深察、御病後의 御靜養도 얼마안되여 瑞西、和蘭、獨逸을 御訪問한外에는 御豫定을 御中止하사 急히 御歸途에 오르셧다고 承聞되는데 御病後라고도 拜察되지 안는 御元氣잇는 御顔色에 奉迎者一同은 國難克服에 緊張하는 마음과함께 歡喜로써 奉迎하여드리매 兩殿下께서도 御感激、特히 기프시게拜察되엿다 午後二時二十分 橫濱港驛 御發車 臨時列車로 同三時五分東京驛御着車、御機嫌御麗하시게 一旦赤坂表町의 御殿에御歸邸하시고、午後四時半御參內、天皇陛下께 御對顔、御使命을御復命하시엿다

八個月만에拜하는 御機嫌御麗하신御姿 感激의橫濱御入港

【橫濱電話】光輝잇는 御歸朝를 御奉迎한 橫濱市는 各戶에 國旗를揭揚하고 波靜고요한 港內 船舶의 滿船飾에는 秋風이 爽快하게불며 四號岸壁을 爲始하야 埠頭에는 橫濱市의 男女學生、在鄕軍人、靑年團等이 奉迎의位置를整列、百武橫濱鎭守府司令長官、半井神奈川縣知事、靑木橫濱市長、靑木縣會議長、田邊市會議長以下有資格者도 參着 天皇陛下勅使大谷大夫、高松宮同妃兩殿下、三笠宮殿下를 奉始하야 各皇族 松平宮相、木戶總秩宗總裁 그레기英大使、其他文武顯官은 四號上屋에 御出迎하여드렷다 이보다면저 御乘船氷川丸은 港外에假泊하엿다가 須臾에 港內에進入하야 岸壁에 接近한다 拜하건대 秩父宮殿下께서는 御通常禮裝으로 妃殿下께서는 로브몬탄트의 御裝姿로 A데키에 나압시사 岸壁上에서 小旗를 흔드는 一同의 奉迎에答하시엿는데 上屋에 歡迎하여드린 皇族여러분과도 여러번 御手를 擧하사 御人事하시고 船體가 岸壁에다자 天皇、皇太后兩陛下 勅使御使、皇族여러분을 奉始하와 文武官等은 船內에까지 御奉迎하여드렷다 兩殿下께서는 A데키의 喫煙室에서 勅使御使와 皇族여러분께 御對面、御歸朝의 御人事를 交하시고 이어서 라운지에 드시사 松平宮相、百武橫鎭司令長官、半井知事、靑木市長、元尾稅關長 그레기英大使等 顯官御親族에게 一一히 謁을 賜하시고 또 B데키食堂에 나압시사 여기서도 靑木縣會議長을 爲始하야 文武官等에 列立拜謁을 賜하시고 日本酒杯를 드시사 皇族、其他一同과 함께 御祝杯를 드시엿다 이리하야 兩殿下께서는 各皇族과 함께 御退船、一般奉迎者에 御會釋을 賜하시며 臨時列車로 御乘車、午後一時二十分 橫濱港驛을 御發車 東京으로 向하시엿다

東京驛頭의奉迎 그리우신御殿御歸還

御名代宮同妃兩殿下의 御歸京을 奉迎하는 帝都는 東京驛으로부터 表町御殿까지의 御沿道에는 正午지나서부터 學生、在鄕軍人、靑年團 一般市民等이 堵列하야 一同이 感激에넘처 奉迎하여드렷다 御歸京第一步의 東京驛頭 第三番에는 閑院參謀總長宮、同若宮、伏見軍令部總長宮、同若宮、賀陽宮同妃、東伏見宮大妃各殿下 近衛首相以下文武顯官各國大公使等이 整然히 奉迎하엿는데 午後三時五分臨時列車는 第六番線에 到着 兩殿下께서는 松平式部長官以下 隨員과함께 御機嫌麗하시게 폼에나리시사 御出迎하신 各皇族여러분과 一一히 御人事하시고 또奉迎諸員에 對하여도 御會釋을 賜하시고 天野東京驛長御先行、近藤運輸事務所長 御先導로 各皇族압께 中央通路를 御通過 御車寄에서 宮內省으로부터 奉迎한 菊花御紋이 빗나는 自動車에 兩殿下御同乘 松平式部長官以下隨員과 今村別當等의 御隨行下에 沿道의 御奉迎을 바드시면서 御八個月만에 그리우신 表町御殿에 御歸邸하시엿다

兩殿下宮城御參內 重大御使命御復命

御殿에드시압신 兩殿下께서는 午後四時半御同伴하야 宮城에御參內 大奧에서 天皇陛下께 御對顔、光輝잇는 御使命을 御復命하시엿스며 이어서 皇后陛下께도 御對面、御人事後 暫時御歡談、다시大宮御所에 御伺候、皇太后陛下께 御歸京 御人事를하시엿다 또이날 宮城大宮御所 各皇族과御親戚의 御贈答도게시사 御慶祝하시엿다(寫眞은 秩父宮同妃兩殿下)

對日經濟斷交 英、不可能으로決定

米國協力期待難으로

【倫敦十四日發同盟】英政府는十三日午前의 定例閣議에서 對日經濟의斷交는 現下 情勢下에서는 實行不可能이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엇는데 쳄벌린首相은 同日午後 勞動黨黨首아토리少佐와 同黨領袖그리윗드氏以下 勞動、自由兩黨議員團과의 會見에 際해서도 이決定을 言明하엿다고한다 英國政府가 이結論에 達한 理由는 左의諸點이 列擧되고잇다 現下의情勢로는 對日經濟 斷交는 米國의協力을 期待할수 업다 英國單獨의 經濟斷交로는 日本에與할打擊은 不充分하다 왜 그러고하면 日英通商은 日本의 總貿易額의 겨우四퍼센트를 占한데 不過하다 日本과 濠洲 日本과 加奈陀와의 貿易의 年額에도 達치못하다 日本은石油의 大部分을 蘭印方面에서 輸入하고잇는 現狀에鑑하야 英國이 對日石油禁止를 實行하드라도 큰効果는업다

海軍從軍畫家 岩倉具視氏曾孫戰死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七時지나 海軍從軍畫家 岩倉具方氏는 不幸히 敵迫擊砲彈의犧牲으로된 岩倉具方氏는 當日戰場에서 彩管을들고 바스를 들고 旅館에도라가는途中 壯烈하게 殉職한것으로 大端히 愛惜된다 岩倉具方氏는 維新의元勳 岩倉具視氏의 曾孫이다

日伊回答接受後 白、會議主催를承認

【日內瓦十四日發同盟】白耳義政府는 九國條約會議에 關한 日伊兩國의 意向을 打診中이던 日伊兩國으로부터 回答을엇는대로 近近九個國條約會議의 主催를 承諾한다는 言明을 正式으로 發表할것이라고 解釋된다

島田部隊 彰德爆擊

【○○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四時我荒鷲의 京漢線上 彰德爆擊에뒤이어 我果敢한 島田部隊의 ○○機는彰德上空에至하야 停車中의 列車를 爆擊하엿다

上海의敵、三方으로 我非戰鬪地區砲擊

北四川路一帶交通杜絶

【上海十四日發同盟】雙十節을 헛되이보낸 敵은 十四日午後六時四十分을 期하야 我非戰鬪員 居住地區인 虹口一帶를 目標로 江灣、閘北、浦東의 三方面으로부터 一齊히 野砲迫擊砲로써 猛射를 퍼부어 砲彈은 各所에 落下하야 北四川路一帶는 交通이 杜絶되엇다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七時五十分 敵은 再次虹口上空에 飛來하엿스나 我防空砲火로 擊退되엇다 敵은 空襲과 呼應하야 迫擊砲로써 逆襲하여왓스므로 彼我間에 오래간만에 戰鬪가展開 砲聲殷殷히 夕闇의 虹口를 震撼시키고잇다

八時餘의大激戰 三義里方面逆襲敵 一大隊를反擊潰滅

【羅店鎭十五日發同盟】上海北部戰線의 支那軍은 十四日夜半을 期하야 三義里方面에 約一大隊의 兵力으로 逆襲하여와서 全線에 亘해 約八時間餘의 激戰이 繼續된結果 十五日早曉 多大한 損害를 남기고 擊退되엇다

【上海十四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 午後十時四十分發表 十四日午後六時頃閘北敵은 我陸戰隊佐野部隊方面에 對하야 猛烈한 砲擊을 行하는同時에 同七時頃 約一個大隊의 敵密集部隊가 喊聲을 치며 三義里方面에 逆襲해왓다 佐野部隊는 이敵을 沈着하게 眼前에 誘致하야 鉄砲火를 퍼부어 이에徹底的打擊을 與하야 消滅케하엿다 陣地前의 敵遺棄死體數百을算하고 我佐野部隊의 鹵獲兵器는極히 多數에 達하엿다

齋藤大使의 公開演說

【華盛頓十四日發同盟】加藤同盟特派員 駐米帝國大使齋藤博氏는十四日華盛頓의 全國記者俱樂部午餐會의 主賓으로 招待되여 今回의 事變以來最初의 公開演說을 行하엿다 來會者五百餘名、아프톤싱크레아氏가 이俱樂部에서演說한때를 除外에는 일즉이보지못한 盛會로서 華盛頓이 新聞記者의 活動의 中心地인만치 同大使의 發言은 非常한注意를 惹起하엿다 大使는 西安事變當時 蔣介石이 共産分子에 與한 抗日言質、支那가 日本의 對支政策實現에 當하야 日本의 國力을 寡少히評價하고 一方自國의 軍備充實을 過信하엿든 點을 擧하는同時에 今回事件은 明白히 支那의 挑戰에 依한것으로 日本은 不得已 根本的解決에 進出하지아니치못하게된것等 現在까지의 推移를 說明하고 또 日本은 支那의資源과 市場과를 必要로하며 支那도 또한 日本의 商品을 必要로함에 不拘하고 그 通商의 常道가 支那 軍閥에게 阻止되는 理由는 업슴이라고 國民黨의 排日運動에 言及하고 支那의 無秩序、支那政府가 近代的國家의 形態를가추지못하고 利權的存在인것等 支那의 現狀을說明하고 또日本이九國條約 其他違反이라는 非難을바들 理由는 업다는것 日本의眞意는 條約違反이라함은 日本이 支那의 領土를 要求한때 비로소 말할것으로 現在日本의 在支居留民의 莫大한 投資가 危險에 瀕하여잇다는此際 我等으로서는 이를保護함은 當然한것이라고 說明하고 最後로第三國의 干涉은 問題의 解決을 困難케 할뿐으로 平和的解決手段이아니라고 하고 安藤同盟特派員의 通州脫出記를 드러 支那의 無辜한 民衆은 이와가티 日本人과 조흔 關係에잇는바 排日敎育과 排日運動이中止되면 日支關係는 잘調整이될것인바 我等은 反省을支那에求하고잇다고 結論하엿다 다음大使는 質問에應하엿는데『日本은支那와 媾和를 希望하느냐』는 質問에對하야 大使는 그럿다 但第三國의 介入에依하는것은 不可하다고 그理由를 擧하야 明確率直히 答하야 多大한 感銘을 與하엿다

伊軍各種部隊 續續리비아에增派

【羅馬十四日發同盟】伊太利의리비아派兵은 그後도 繼續敢行中 十三日夜行으로 行하고잇는데 約一千五百餘名의 部隊가 나폴리港을 出發하야 一路리비아로向하엿다 또十四日도 步兵、砲兵 特別機械化部隊、衛生隊로成立된 七千의 軍隊가 리비아로 向하야 出發하엿다 軍用船도 繼續徵發되여 目下數隻의船舶이軍隊輸送船으로 待機하고잇다 現在 리비아駐屯中인 伊太利軍의兵力은 마침내 아라비아에잇는 英國駐屯兵과 튜니스에잇는 佛國駐屯兵을 顧하는 大兵力을 擁하게되엇는데 뭇솔리니首相은 또五萬의 本國部隊를 리비아로派遣할意向이라고한다 또이動員은全然嚴秘裡에行하야 伊太利陸軍의最高首腦部까지도 動員 兵數 兵種等은 全然 聞知하지못하는狀態이다

時事解說

獨白不侵條約

獨逸의 라인再武裝을따라로 칼르노條約이 한장의 休紙로 돌아가고 伊太利의 에치오피아征服을 얼마아니하야 聯盟의 制裁가 解除된後 가장 焦燥하야온것은 白耳義다。大戰以後 白耳義는 佛國과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다시 英國의 援助를 어더서 로칼르노條約을 매젓고 또 뒤이어 英佛白三國의 作戰協定을 맨드럿든바 로칼르노條約이 無効한때에 이르러 英佛 特히 佛國에 對한 信念을 일케 될것은 必然한 일이다。그런데 獨佛間戰爭이 勃發될때는 作戰協定을理由로 獨逸은 白耳義의 要塞線을 마되노 要塞線의 延長으로 認定하야서 가장몬저白國內에 侵入할것이 아닌가。거기對한 英佛의 援助가 온다고 하더래도 그것은 이미 侵略者가 어느程度의 蹂躪을 한 以後에만 可能하다고보아야올타。

◇ 이러한 關係아래 昨年十月 白耳義皇帝 레오폴드三世는 드듸어 大戰前의 中立으로復歸함을 宣言케 하얏고 또今番 獨逸과의 不可侵條約을 맺게 한것이다。今番의 不可侵條約은 究竟 獨逸로 하야금 그 中立宣言을 勝認케하고 다시 그것을 條文化한데 지나지 안는다。

◇ 그러나 그것은 오직 白耳義편으로만 본 이야기지 獨逸편으로 보아서는 힛틀러總統의 年來 抱持해 오든바 獨逸의 國策을 다시한번 鮮明히 들어낸것이다 그것 무엇인고 한즉 그 條約으로써 獨逸은 이제부터 西部國境에 對한 平和政策과 아울러 東部國防에對한 强化를 行하야 反共一點의 旗幟를 노피드는同時에 그로써 佛蘇親善의 熱을 冷却시키고 또 그로써 英國의 戒嚴을 避하려는 까닭이다。우리는 요前者 獨逸軍部의首腦가 巴里訪問을 行하얏다는것도 함께 記憶치 안 하면 안 될것이다。그것도 역시獨逸의 이러한 國策의 前提가 아니엇든가고 새삼스럽게 疑心된다。여기 對하야 佛國의 對策는 果然 어떠할까。그것이 今後 우리의 興味를 끌바다(X)

羅馬敎皇廳 日本支持表明

【바티칸市十四日發同盟】羅馬敎皇廳은 赤色西班牙叛軍政權을承認하고 斷乎히 排共의決意를 表明하엿는데 今日까지極東에잇서서 日本의反共聖戰에對하야는 態度表明을 留保하고잇든바 十四日非公式覺書形式으로 極東의 管下全카트릭敎團機關에對하야『볼쉐비즘의危險이 發生하는境遇 日本의對支行動에 協力하도록하라』는 重要指令을發하엿다 右覺書는 八個條로 成立되여 그 要旨는 如左하다

一、日支雙方의 傷病兵을 救出할것
一、支那人에 對해 日本文明觀을 認識할 必要가잇다는言辭를 說得할것
一、支那는 그面積이 廣大함으로 支那人이 그古代文化의貢獻을 再認識한다면 徐徐히日本의 影響을 吸收할수잇다
一、볼쉐비즘의 危險이나타난境遇에는 到處에서日本의 行動을無條件으로支持할것
一、日本軍當局에 對하야 카트릭敎會側에서는 日本과完全히 協力하는데 障害가되는것은全然行하지안는다는旨를 明瞭한印象을 주도록 努力할것
一、羅馬敎皇廳은 同管下카트릭敎團에對하야 反英的宣傳에 加擔하지안코 오히려 英國의 宗敎의 自由가 保障되어잇는 다는旨를 强調하야 必要가잇다는旨를 發하엿다고 傳한다

內閣參議發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支那事變에關한 重要國務에對하야 內閣의籌議에參畫시키여 그意見을 徵하기爲하야 臨時內閣參議를設置하기로되여 前부터 人選中이엿든바 十五日左와如히 內閣參議十名의發令이잇섯다

陸軍大將 宇垣一成
町田忠治
海軍大將 男爵 安保淸種
陸軍大將 男爵 荒木貞夫
海軍大將 末次信正
前田米藏
秋田淸
松岡洋右
男爵 鄕誠之助
池田成彬

臨時內閣參議 官制公布

【東京電話同盟】樞密院의 御諮詢을經한 臨時內閣參議官制는 御裁可를經하야 十五日 勅令第五百九十三號로써 公布되엿다

敵機原平에來襲 我反擊으로算亂遁走

【原平鎭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前八時三十分頃敵飛行機十一臺는 太原方面으로부터 原平鎭上空에襲來하고 爆彈數箇를 投下하얏스나 我地上部隊의 一齊攻擊에 견듸지못하고 敵飛行機는 算亂하고 西方으로遁走하엿다 我軍에는 被害업다

敵의爆彈이 永安紡績에命中

【上海十四日發同盟】本日夕刻上海上空에 飛來한 敵의爆彈이 西部上揚地帶 麥根路支那人이經營하는 永安紡績第三工場에 命中되여 前面倉庫內로부터 發火하야 同六時半頃부터 約一時間에 亘하야 燃燒를 繼續하엿다 損害는 莫大할豫想이다

裝甲突擊列車 敵反擊을擊破

【天津十四日發同盟】我裝甲突擊列車는 午後四時平漢線의 高邑을通過하고 午後五時지나 鎭代驛을 通過한後 前方一粁의 線路에 이르럿슬때 突然二百의敵이 來襲하여왓스므로 遠山部隊는 卽時擊破하고 ○○部隊와 合하야 敵을 擊退하엿다

日本軍이毒瓦斯使用햇다고 支那代表가通告

【쥬네브十四日發同盟】支那聯盟常駐代表何傑才氏는 十四日아브놀事務總長에게 通牒을 보내여 日本軍이 聯盟의 空襲非難을完全히 無視하고 十月三日부터依然히 無防備都市의 空爆을 繼續하고잇는外에 또上海戰線에서 毒瓦斯를 使用하고잇다는 旨를 報告하야 右通告를 聯盟各國에 通達하도록 要請하엿다 何代表는 事務總長에게 日本軍의 毒瓦斯使用을 證明하엿다고 稱하는 南京赤十字病院醫師長엇친가 博士와 聯盟保健部駐支代表보르치크博士의 署名한 聲明을手交하엿다

八面鋒

◇面마다 小作相談所를 設置하고 無識한作人을爲하야 有効한調停에努力한다고。
◇昌原一郡에서만必要한일이아니오 運用만잘한다면 全朝鮮各面에 設置해도 조흔機關。
◇共勵組合이니 殖産契니 振興會니 農村中心의福利增進機關이許多하지만。
◇事實上 村民을爲하야 조흔結果를주지못한다하면 有名無實한것、有名無實을免하는方途는 理事者의 熱意에달린것。
◇悲運의 永信校를爲하야 篤志李炫九氏가 一萬四千圓을喜捨하엿다고。
◇李氏의敎育에對한熱誠은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宣敎會와 絶緣하게된 學校가 만흔이때 더욱意義깁흔일。

人事·集會

▲平壤金仁商會主催本社平壤支局後援 金剛山探勝團員二十七名 金晩炯、金仁京兩氏引率下本社參觀

가정에서간단히 하로에 두번식 三四分치료로어여뻐집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어엽뿐것 깨끗한것을조화하며 사람을 대할때에도 먼저 모양보다 얼굴을 치여다보게됩니다 누구든 어느분이나 갓낫슬때에는 어엽뿐자체와 고흔 살결을타고나왓으나 오늘날까지 그와가튼 어엽뿜을 보존하고계신분이 몃분이나 게십니가!

그러므로 흔이 남들이 모도하다고 다가티 얼골을흉하게하라고 분단장(白粉、크림、물분등)을 하서서 일시적화장을 하시고게시나 이것은 그당시뿐이지 조곰만 지내면 오히려 아니발으신것만도 못하게되고 그살결의바탕은 점점 더욱흉하게될것이니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경험하시고 계실줄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살결이 거무것은 피부의세포에 색소층(色素層)이 생김이잇는 까닭이며 살결이 거칠거나 얼굴에 무엇이모도생기거나 주름이잡피는것은 피부면에병균이부텃든가 혹은 피부영양(營養)이 충분치못하든가 피부의 신진대사기능이 충분치못한까닭에 그런것이니그러한원인을 그대로두시고 다만 겻치장만하시니가 그럿케 아모리조타는 화장품을 발느서도 살결이 거칠어진것도 낫지안코 버짐、죽은깨、여드름이 고대로 잇스며 살결도 본바탕으로 히고곱게되지안흘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하면 조흐냐하면 활성(活性) 고로이도유황(硫黃)의 미백소균작용(美白消菌作用)으로 근본료법이된다는것이 구미각국미용계에서 승인되고잇스니 즉『레오洗顏크림』으로곳치시면 단시일안에 근본료법이될것으로 가정에서 간단히사용할수잇스니하로에 두번식三四分치료로 약용이될뿐만아니라화장이됩니다

처녀시대

명랑한 新女性의 활기와 靑春의꿈을 어엽뿐얼골에서 찾도록하실 여러분! ·자기만이 갓지고잇는 어엽뿜을 깨닷지못하시고 남이한다고 분단장을하시나 어려에시절에 가젓든 히고 곱든살결을 오늘날에는일코 여드름 버짐 잔티 햇빗에껏은 거게된얼골로된때문에 생기는 오뇌와 번민을 해결키 위하야……

가정부인

시부모 남편시종과 어린애 치다거리와 살님사리에 골몰하시는사이에 가정주부로서의 순진한녀성의 애교와 모성애에 넘치는매력을 家庭의平和를위하야 늘보존하셔야됩니다 그러므로 어엽뿐자태와 살결을보존키위하야

직업부인

직업상 하는수업시 매일분단장을 하시게되기때문에 분에껄고 연독이되어서밧갈이、검고 푸르며、무엇이생기고 피부영양이납빠저서생기는 파래가는 회색과、매력을 다시 차즈며 연목을 업새고 일허버렷든 靑春의웃슴을도로찻기위하야…

정가——普通瓶(약한달분) 一圓四十錢、德用瓶 三圓四十錢 데파-트型 一圓五十錢 이오며 송료三十錢을 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는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아해드립니다

또한 男子諸氏께서는 美容的으로보담 皮膚榮養料와 美白殺菌作用으로써 꼭必要하오니 햇빗에 껍졋든、낭뉴당리 얼플이거문분、여드름、기름이흐르는분은 단시일에根治가됩니다

오늘부터속히『레오洗顏크림』으로 근본치료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러케 어여뻐젓습니다

여드름은자최조차 업서지고살결은美麗하게 (論山) 姜文植

(前略)저는二年前부터 여드름이나기시작하고 同時에살결이거츠러지게되어 그동안동모의말과 廣告等에서보와 여러가지 약을 盲目的으로만히써보앗습니다만 그만흔약중에서 이럿타할만한약효를 도모지보지못하여 번뇌중에세월을보내든中 偶然한機會로 동모에게서『레오洗顏크림』을使用하여보라는말을듯고 卽時사다가써보앗습니다 아침과 몸욕하고난뒤에는 빠지업시 꼭쓰곤하엿습니다 그리하야 普通瓶을 다쓰고날때에는 여드름은勿論 거츠럿든살결까지 보들보들한살결이되고말엇습니다、그때의나의깁븜이야말로 이루다말할수업섯습니다、그後다시德用瓶을購入해다가 오늘날까지써왓는데 어려슬때부터 검든얼골이 간난어린애의살결가티 보들보들하게되엇습니다 自己도놀낼만치 희한하게되엿습니다 그래 지금은집안식구가모다『레오洗顏크림』의 愛用者가되고말엇습니다

죽은깨와버슴이업서젓다 (開城) 金周學

동믈이 울울한此時初夏에 貴社의여러분의健康을企祝하여 마지안습니다 小生은 레오세안크림을使用하기始作한後로는 그생각만해도 머리가지긋지긋한 脂肪 덕구나 버즘과죽은깨가 매우적어저서 몰나보리만치히게되엿습니다 죽은깨는 兄弟中에서 小生만이잇섯기때문에 오래동안 혼자서항상우울하게 지내왓습니다 시름업시보내와던것입니다 그래兄弟들도 요새에는 自己일갓치깁버하면서『이것이다』라고하며 熱務하여줌니다 (後略)

家庭美人의 本體는이러합니다 (京城) 尹夫人

……前略…그럼으로 우리조선에서 더군다나 가정부인으로서는 外國여성의화장법은 도대체 본바들수업는것이니 잘분시간에 그것도아침세수할때와 밤세수할때얼골씻는것만그것으로써 그효과는 백배 간화장보다 멋시원의化粧品보다 나흔 레오세안크림을 여러동무들께 추천하고싶습니다 부억일과빨래 남편의시중이런것을 식모나녀에게 맛기고 저는 실컨자고 이러나면 화장단장에 시간만허비하는 그사람이 어여뻐보인다고할수잇겟습니까 제살결을바탕부터 매끈매끈하고、라릿잇는美를 가지게하는레오세안크림만이 참다운 가정미인을맨듦니다 저는 몰롱 이크림으로 이러케가정미인이 되엇스니말이지요……

통지하시는대로조선문으로된
新家庭美顔療法
을거저드림니다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株式會社 레온商會
振替東京八八一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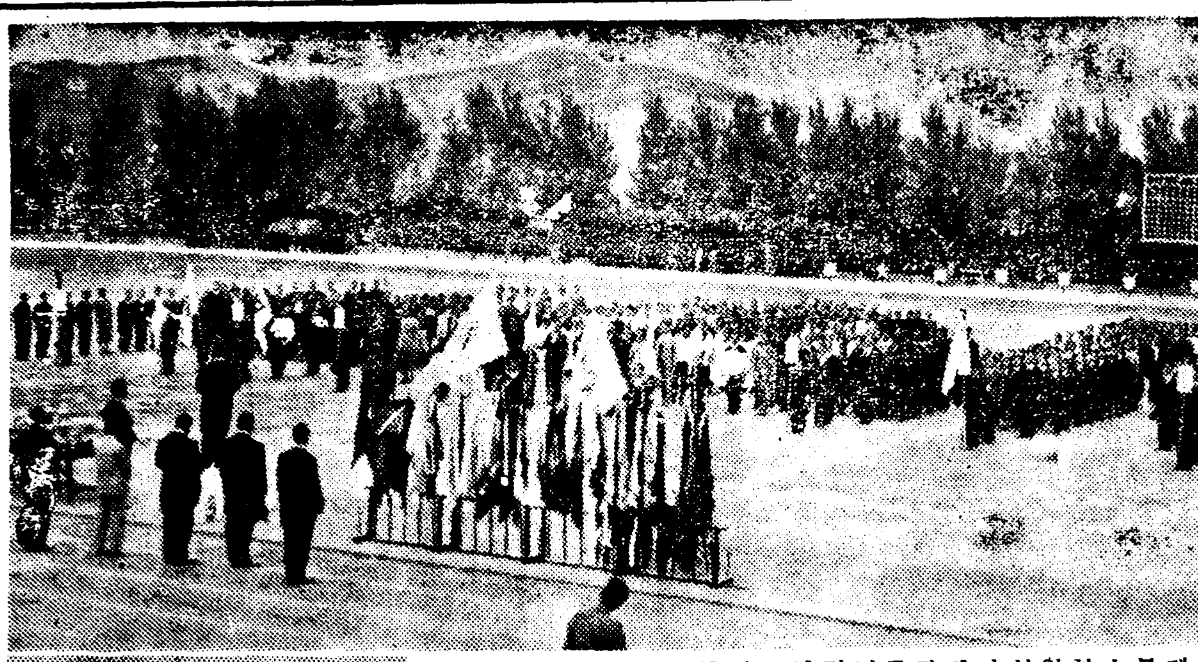
每戶百五十圓式支給 二千四百戶를移轉
永登浦、敦岩町區劃整理와 區域內民家劃期的大移徙

지난사월부터 착수한 영등포(永登浦)및 돈암정(敦岩町)두곳의구획정리지구(區劃整理地區)약 이백삼십만평의 가환지(假換地)는발표할터이엇스나 기술원의 보충과 기타여러가지 사정으로 예정보다 느저저서 십일월중순경에 발표하기로 되엿다 그두구역안에잇는 사천호의민가(民家)에 대하야 가환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그중의 이천사백호 가량은 이전시키게될터인데 이전비는 매호에 평균일백오십원식으로 합계삼십만원을 경성부에서 지출하기로 되엿다 이천사백호를 한꺼번에 이전시키는일은 경성부에서는 일즉이보지못한 처음잇는일로 근대적도시계획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구획정리가 순서대로진행되고 땅갑도 현재의 시세를 보존하게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시세의 변천으로 갑시 현재의 시까보다 장차 떠러지게된다면 지주의 부담으로 구획을 정리한나머지에 도리혀 지주의 손실이생기게될 우려도 업지안흘것으로 예측되는터이다

映畵를通하야 時局認識徹底化
政務總監名義로各道에通牒 映畵業者를指導

총독부에서는 영화보국(映畵報國)을철저히 하도록 십일일 각도에 엄중한 통첩을 발하얏다 최근영화선전은 각방면을 통하야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잇는바 특히이번사변 발발이래 시국인식 철저에대하야도 각영화회의활약이 자못맹렬하다 동경(東京)기타대도시에는 『뉴—쓰』영화상설관이 설치되여 련일대만원을이루고 잇스며 경성에도 『뉴—쓰』영화전문상설관이 출현한다는소문이 최근 자못 노픈데 만일이 『뉴—쓰』영화상설관이 경성에 출현하는날에는 다른영화는 반드시 압도될것이라 고보지 아니할수가업다 따라서 영화로하야 국민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진실로 막대한것이므로 시국영화를 유효하게 지도장려하야 참된영화보국을 도모하도록 하는것은 긴요한문제이라하야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이에대하야 수차협의를 거듭한결과 지난십일일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의명의로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한것이다 그내용의 대개인즉 각지영화상설관에 대하야 시국 『뉴—쓰』영화를 적극적으로 상영케 할뿐아니라 이것을 상영하는 기회에 반다시 적당한장소에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와 국기 기타표어등 인쇄한것을 게시하며 이것은총독부에서 필림을제작하야 각상설관으로하야금 구입하도록하야 뉴—쓰영화상영전후 기타적당한 기회에 반다시상영하도록 명령할것등으로 대개거국일치관념강조와 애국사상환기를 골자로하는것인데 그결과 민중에게미치는 정신적영향의좋게를 각도로 하야금 총독부에보고케하는것이다

神宮奉賛體育大會 今日盛大한入場式
總督總監臨席、三萬餘名觀衆



寫眞 上은 入場式에 參列한 十三道代表들、下는 萬歲先唱하는 南總督

십삼도에서 추려뽑은 삼천이백남녀건아가 동원하야 성대하게 개막된 제십삼회 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의 장엄한 입장식은 상랑한 스포—츠날씨에 축복바더 십오일 오후령시십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남총독(南總督)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림석하에 엄숙한가운데 거행되엿다 정각에 연기(擔旗)기수(旗手)가바든 대회장기를 선두로 대회역원 작년도 우승자와및 각도대표자백여명은 륜랑한 행진곡에 마추어 보무당당히 입장하니 매택체협주사(梅澤體協主事)의 사회로입장식의 막이 열리엇다 벽두에 국가합창(國歌合唱)리에 선수대표의 국기게양식(國旗揭揚式)이 잇섯고 일동의 황거요배(皇居遙拜)를하고 전지에서 활약하는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기원하고작년도 우승자들의 우승기와우승배를 반환한다음 동대회회장염원(鹽原)학무국장의 개회사에뒤이어 동대회총재인 대야정무총감의고사(告辭)가잇섯스며 동대회총무위원장인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씨의 선독으로만장이 황국신민의서사(誓詞)를랑독한후 평화를상징하는 비달기떼를방상하고 남총독이 단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선창하야 수만하도와 관중의 만세성은 훈련된드를 진동시켯다 이리하야 신궁봉찬대회개시이래 처음보는 성황을이루운 입장식의 막을다치니 때는 오후영시 사십분 이엿다 식이 끗난다음 남자중등의교진단운등이 륙천명의 건국체조와 일천백명의 황국신민체조(皇國臣民體操)등이잇서 대회기분을 절정에달하고이서다 이날상공에는 신용욱(愼鏞頊)비행사의 축하비행이잇서 또한이채를띄엇다

益善町에小火

십오일오전열시경부내 익선정(益善町)백오십류번지김혜완(金惠琓)의집부억에서 불이일어나 이웃양경운(梁璟雲)의 초가집등에 다러일어 대소동을 이르켯스나 달려온여섯대의 소방대의 활동으로꺼젓다 손해는십원 원인은 아궁밥지은뒤 부억을 잘단속치 못한까닭이다

十九日閣議에서決定 朝鮮防空法實施
朝鮮防空委員會令도함께 審議는이미完了

조선의 창공을지킬 방공법(防空法)은 지난사월일일 내지에서 실시한뒤를이어 이것을 조선서도 실시하고저 방금동경가서잇는 산택(山澤)총독부 심의실사무관이 법제국과 절충중이든바 드디여 심의를 마치게되여 만주(滿洲) 화태(樺太)와함께 시행되게된 관게로 다소가늣게되엿스나 오는 십구일 각의(閣議)에서 정식으로 부처 토의결정한후에 즉일공포실행을 보게될예정이다 각의에 부칠 칙령안(勅令案)은 방공법 조선시행령(防空法朝鮮施行令) 조선방공위원회령(朝鮮防空委員會令)두건으로 여기따르는 조선방공법시행세측과 그밧게관게규례는 총독부령으로 공포할터로 드디여 조선방공의 본격적 충실이 실현될터이라고한다

中堅青年講習會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農)에서 개최중이든 총독부주최의제십이회지방중견청년강습회(中堅青年講習會)는십삼일에종료하엿다 강습생 삼십오명은 십사일오전 열한시에 총독부제삼회의실에 참집하야염원(鹽原)학무국장의훈시와 김(金)사회교육과장의 강화가잇슨뒤 각기해산하야 지방농촌으로 도라갓다

平北國境警備陣强化
警官增員·新銳武器配備하야 匪賊掃蕩에全力

【新義州】평북도 경찰부에서는 오는결빙기(結氷期)를 압두고 국경 경비진의 강화로 복부(服部)부장이하 간부가 련일회의를 거듭한결과 특히 시국에 비추어 일층 경비강화를 하려고 총독부에 요구중인 칠십명의 경찰관증원이 인정되여 십일월초순 착임할예정인데 이를 제일선에배치하는동시 철도경비 경비외 만전을기하라는 동시에국경 제이선에 출동하엿든 약오십명을 로 하야 인적정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십이일부로써 관하각서 주재소 수석에게 통첩을 발하얏는데 금년은 방어전책을 떠나 적극적 "비적"소탕을 단행하기로되엿다한다

露宿乞人품속에 三百餘圓現金
出處를追窮取調

십오일새벽 본정서형사세명이 훈련원(訓練院)부근일대에서 로숙(露宿)을하고잇는 주소부정김동원(金東元)(二二)등 일곱명의집단을 붓잡어다가 몸뒤지어보게 나온것은 바지속에감추어두엇든 돈이 삼백여원이나 나와슴으로 그출처를추궁중인데 보잘것업는 소년거지에게서 이가리 만흔돈이 나오는것은 드물게보는일이라고한다

鬼才沈亨求氏 文展에入選
東京畫壇에名聲燦然

전일본화단에 최고 등룡문인금년가을 문전(文展)양화부(洋畵部)에 수만흔 일류화가를제치고 조선사람으로는 단한명으로 보기조케 입선한청년화가가 잇다 그는경성출생 심형구(沈亨求)씨로 그는동경상야(上野)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연구과에서 정진하고잇는 청년화가로 전년 제전(帝展)에 입선한이도잇고 조선미전에는 두번이나특선 된화려(華麗)을 가젓다 이번의 출품은 『검무』(劍舞)로 특히이번문전은 일반의 대작주의(大作主義)와 벽면(壁面)의관계로 비상한엄선을하야 과거특선급들로 락선자가 질편하게 생기는판에 이란관을 돌파하고 영예의입선을하야 조선화가로서 만장의기염을토하고잇다(사진은심형구씨)

平北에暴風襲來 高瀨船數隻顚覆
判明된損害二萬圓

【新義州】지난십일일밤 평북일대에는 때아닌『비』와 아울러 『폭풍』이습래하야 각처에피해 가막대한데 이폭풍으로 인하야신의주세관(稅關)소판교부근에 게류중인 압록강수주식회사소유의 고뢰선 사척이 노도에전복되여 압록강수력전기(水電)공사에 가저가는 적재중인『세멘트』륙백포대와 기타기구다수를 류실하얏다 그리고 피해상황은 알수업스나 선박모다 이만원내외에달한다고한다

採金技術生募集

이번신경기도 학무과의 알선으로 만주(滿洲)신경(新京)에잇는 만주채금주식회사 기술원양성소(滿洲採金株式會社技術員養成所) 생도를 모집하여 보내게되엇는데 응모자의 자격은 중등학교졸업자로서 신체 학술시험에 합격한사람인데 조선인 세명을 뽑기로되엿다 시험기일과장소는추후결정될것으로 자세한것은 경기도 학무과로문의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天氣豫報

今夜는 曇、小雨明日은 흐려다개인다

昨日最高 十七度
同最低 七度九
今朝最低 五度八
今日正午 十一度二

秋季釋奠祭 今日盛大히擧行
南總督誓願文奉讀

경학원(經學院)주게석전제(秋季釋奠祭)는 양력으로 개정한후 두번재로 십오일오전십시부터 정봉시대제학(鄭鳳時大提學)의 주재하에 엄숙히거행되엇다 남총독(南總督)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하 총독부각국과장을비롯하야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좌백경성부윤(京城府尹) 조선귀족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부내 남녀중등의교 회사대표 각지로부터 참집한유림이상의정원생도대표 부내각의행 유림(儒林)기타 민간유력자 약오천명이참례하야 정대제학의초헌(初獻) 유진찬부제학 (俞鎭贊副提學)의아헌(亞獻) 리대영부제학(李大榮副提學)의 종헌(終獻)으로 절차대로 행하야 제전이 진행되엇다 제전으로서 가장중요한 종헌까지만위선마친후 오전십일시경에 지나사변과 비상시국에관한 서고식(誓告式)을거행하얏는데 서고식에는 남총독으로부터 서원문(誓願文)봉독이잇섯다 그리고 다시 제전절차의 나머지를 계속하야 진행하고 정오경에 제전을종료하얏는데 이번 석전에는 서고식등의 시국을 가미한만치 상당히긴장한가운데에 거행되엇다 (사진은 석전식장)

消費節約尖兵 使童群에傳令

국민정신총동원주간(國民精神總動員週間)에제하야 국산품애용과 소비의 절약운동을 이르킨 총독부에서는 각종방법으로 그 실행을 기하고잇는데 그중에도 용지의 절약에대하야는 소사(小使)급사(給仕)들의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고하야 십삼일오전 일곱시사십분총독부서 급사 전부이 백수십명을 모흔후 응정(鷹井)회계과장으로부터 시국에 관한 해설적 설명이잇섯고 국산품의애용과 소비절약이 요사이에 중요성을 가하고잇다는뜻을 설명하야용지에대한 세심한주의를 가지고 절약하여야할것이라고 훈시하고 또 원등(遠藤)회계과용도 주임으로부터도 상세한 주의가 잇섯는데 이말을드른 소사、급사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과에서는 더 한층 절약을 하도록 자기의 체험을 짜내여서『용지봉투의절약은 이러케실행합시다』라는 열가지 조목에걸처 절약실행안을 만드러가지고 각각 자발적으로 각부에 배부 실행하기로하엿다

蠶絲協會時局運動

조선잠사회(朝鮮蠶絲會)에서는 사변발발이래 진면(眞綿)기타재료를 헌납하야 잠업보국(蠶業報國)을하고자 활동중이든바 일차로경기도(京畿道) 관내에서 제지한 방한(防寒)용으로 고치(繭) 오백필십이관과 현금일천구백륙십원을 십삼일 조선군사후원련맹(朝鮮軍事後援聯盟)에 헌납하야왓다

朝鮮神宮競技 第六日의各部戰績

朝鮮體育協會主催의 第十三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第六日은 十五日 午前九時부터 陸上競技 軟式庭球女子中等校各道對抗、排球女子中等豫選、籠球男子中等豫選、野球中等準決勝과 一般部準決勝戰이 京城運動場에서 一齊히 展開되엿스며 卓球男子中等選手權大會는 太平通朝鮮日報社 大講堂에서 午前十時부터、男子中等校庭球 各道對抗戰은 奬忠壇軟式野球場에서 午前九時半부터 『코—트』에서 모두 때를가리하야열리엇는데 當日夕刊마감까지의各種競技別의 戰況은 다음과갓다

庭球

各道女子中等對抗

◇第一回戰

【京畿】勝【全北】

○(金貞順 金敬淑)4…0(崔矢 橋野)×

○(金玉顯 郭順水)4…0(堀野 堀之內)×

○(佐藤 佐賀)4…1(山口 松田)×

【慶北】勝【平南】

(第一라운드)

×(金敬淑 姜貞順)3…4(下坂 川梨)○

○(朴鳳香 具順禮)4…1(井上 柴田)×

×(吉村 橋本)0…4(小松 迫田)○

(第二라운드)

○(朴鳳香 具順禮)4…3(下坂 川梨)×

(第三라운드)

○(朴鳳香 具順禮)4…1(小松 迫田)×

排球

◇第一回戰

永生女高2(21 21 … 10 11)0群山高女

龍谷高女2(24 25 7 … 22 23 21)1京城女高

元山高女2(21 23 … 7 21)0淑明女高

第二高女2(21 21 … 14 6)0[illegible]女高

釜山高女2(21 21 … 13 9)0海州女高

籠球

◇第一回戰

中東53(35 18 … 11 8)19中央 (午前九時半(審判=李忠澤、金鎭洞兩氏))

龍中21(21 18 … 0 10 9)19仁商 (午前九時半(審判=李文鎬、朴秉漢兩氏))

海高34(22 12 … 14 11)16二高 (午前十時十五分(審判=李光浩、李思澤兩氏))

邱農24(18 6 … 10 11)21一高 (午前十時十五分(審判=金化泳、大草兩氏))

光成49(23 26 … 8 11)19漢商 (午前十一時十分(審判=崔海龍、洪文吉氏))

平高63(38 25 … 14 4)18道商 (午前十一時(審判=金化泳、大草兩氏))

卓球

第十三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男子中等卓球選手權大會는 十五日 午前十時부터 朝鮮日報社講堂에서 八十一名이 參加한가운데열리엇는바 이날夕刊 마감까지의 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戰】

金泰鼎(平高)3…0李源達(邱農)

崔履恒(培材)3…0北原(善隣)

元容東(平農)3…0重松(龍中)

金紀榮(善隣)3…1鄭光鉉(培材)

秋永(釜商)3…0黃昌郁(崇商)

宮野(京商)3…2井口(善隣)

崔昌讚(二高)3…2古賀(道商)

金泳漢(二高)3…1張鴻傑(一高)

富永(釜商)3…0淸水(善隣)

李長爵(全農)3…0宋永表(崇商)

谷(京商)3…0朴文緒(善隣)

崔相亮(全農)3…0洪基杓(二高)

福井(釜商)3…0趙榮濟(二高)

張大彦(培材)3…0車興燮(崇商)

金東俊(善隣)3…0上田(龍中)

沈鍾秀(二高)3…0金中鎭(全農)

鄭然鏡(善隣)3…1金東鎭(海高)

【第二回戰】

羅根恒(培材)3…0金泰鼎(平高)

李英燮(海高)3…0李根成(崇商)

李鍾世(一高)3…2金斗煥(全農)

朴基弘(釜一)3…1深堀(京商)

元容淑(平農)3…0金起榮(善隣)

姜弘來(全農)3…0白根(京商)

金相熹(海高)3…0大西(京商)

金性浩(一高)3…2中原(道商)

張大彦(培材)3…2金秉俊(善隣)

白鍾奏(釜二)3…2姜熙斗(全農)

金谷碩(大農)3…0山脇(京商)

洪善澤(培材)3…0申承稷(一高)

嚴基烈(培材)3…0遠矢(道商)

李他官(釜山)3…0石原(龍中)

李政熙(大農)3…0澤(京商)

金中鎭(全農)3…1鄭然鏡(善隣)

李長爵(全農)3…0谷(京商)

吳萬根(道商)3…0李仁杓(海高)

福井(釜一)3…0金東申(崇商)

金聖根(平農)3…0猿渡(道商)

姜錫榮(海高)3…0鄭允成(培材)

盧根成(平高)3…0崔相亮(全農)

李協雨(大農)3…0安東烈(一高)

片岡(道商)3…0鄭宇根(海高)

秋永浩(釜二)3…0宮井(京商)

崔昌讚(二高)3…9崔永三(崇商)

金明錫(海高)3…1高平(全農)

劉泰榮(平農)3…0金光洙(平農)

李圭宣(道商)3…9高橋(龍中)

嚴基潤(一高)3…0徐炳斗(大農)

金稷燮(培材)3…0金泰環(釜山)

富永(釜山)3…0金永漢(二高)

【第三回戰】

崔根恒(培材)3…1李英燮(海高)

朴基弘(釜二)3…2李鍾世(一高)

姜弘來(全農)3…2元容淑(平農)

金相熹(海高)3…0金性浩(一高)

秋永晧(釜二)3…0金炳錫(海高)

李圭宣(道商)3…0劉泰榮(一高)

嚴基潤(一高)3…0崔昌讚(二高)

富永(釜一)3…1金稷燮(培材)

金谷碩(大農)3…2洪善澤(培材)

白鍾奏(釜二)3…0張大彦(培材)

李他官(釜二)3…1嚴基烈(培材)

李政熙(大農)3…0金中鎭(全農)

吳萬根(道商)3…1李長爵(全農)

姜錫榮(海高)3…1金聖根(平農)

李協雨(大農)3…0盧根成(平商)

片岡(道商)3…2福井(道商)

陸上競技

【投砲丸決勝】1安永瀷(京畿)一一米五五 2小林(咸南)一一米一三 3李采文(全南)一一米一二 4金潤根(江原)一〇米八七 5尹大重(京畿)一〇米六九 6佐伯(慶北)一〇米六一

【千五百米決勝】1崔得十(咸南)四分一三秒六 2金進石(全南)四分一六秒八 3金鍾植(京畿) 4趙東植(慶北) 5金鍾漢(慶南) 6尹斗平(黃海)

【走幅跳決勝】1本鄕(全北)六米四九 2金建洪(平北)六米四九 3裴炳煥(黃海)六米四〇 4島田(京畿)六米三八 5北野(咸南)六米三五 6草島(忠北)六米二〇

野球

龍中8A 裡農4

中等部野球準決勝、裡里農林對龍山中學戰은 十五日午前九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百瀨(球)田代、馬場(壘)三氏審判下에 裡農先攻으로 열린바 結局八A對四로 龍中이 得勝하야 決勝戰에 드러갓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龍中	1	0	0	1	1	0	5	0	A	8A
裡農	0	0	4	0	0	0	0	0	0	4

◇兩軍投捕=(裡農)尾上—淸水 (龍中)高島、高本—宮村

★★★ 十七日부터五日間 ◆特別興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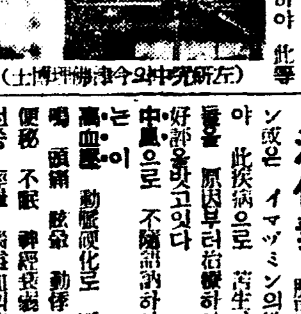
◆支那事變特報 特地로부터新着된 北支뉴—스特報!!

◆新興키네마決死의 大映畵 皇軍一度起たば

◆유나이뎃도超特作 暗黑街의彈痕 機關銃의亂射와毒瓦斯彈雨中에 悲痛한戀愛의殉情詩!!

團成社 ★★★

喘息神經痛과 高血壓中風 血液淨化로治療된다 不治아니다



(今津佛理博士와研究中의 左方)

蠅博士 敗勢으로有名한今津佛理博士는 此等疾病의 原因을徹底히硏究한結果 酒煙草 花柳病或은內臟의障害等으로身體를發症하는毒素가 血液을不潔케되야、循環이不順하고神經이侵害되야發生되는것으로 血液의混濁을除去淨化하야 血液硬化의原因을除去하야 血壓을整調하고 循環을順調하게하야 神經의障害를除去하면 治療되는것이고 決코 不治의病이 아니라는것을 多數의實驗에 依하야 確證을엇고 貴重한植物을主原으로强力한 淨化素

淨化素 此疾病으로 苦生하는 사람들은 原因부터治療하야 不知不識中 苦痛하는 高血壓、動脈硬化로 頭痛、眩暈、動悸、不眠、神經衰弱、足冷、喘息으로 기침과 呼吸困難、神經痛과 류마치스로 關節이 아파서 苦痛하는분은 하로빨리 藥店에서 求하시요! 原因부터 根治하는 新療法을 親切丁寧하게 가르처준다

今津化學研究所 大阪市

結核治療

「萬有」チオサルコール 新注射劑

치오자루코—루

本劑는 구아야고—루스루폰酸가리를主成分으로하고사리치루酸—소—다 부로무가루슘—ロ・葡萄糖等을配伍하야(皮下用은비타민B를包含함) 구아야고—루劑의注射에 依한 直接作用과 配伍藥의解熱・祛痰・鎭咳・食慾亢進等의 各作用과아울러結核・肋・腹膜炎治療上의完璧을期하엿다

(各種의속기쉬운類似品이잇다・치오자루코—루【萬有】에注意하시기바람)

靜脈用 20.c.c. 五管入 五十管入

皮下用 1.0c.c. 十管入 五十管入 2.0c.c. 十管入 五十管入 5.0c.c. 五管入 五十管入

發賣元 萬有製藥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丁目

出張所 京城府本町二丁目百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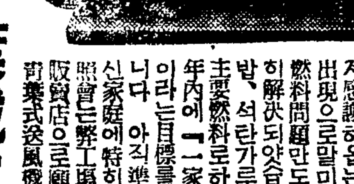
食慾素 わかもと

胃腸의組織에活力을주어、衰弱한機能의自力更生에依해서健全한食慾을喚起식힘

粉末卅日量(錠劑三百錠)一圓六十錢

實用新案特許第二三九二七二號

青葉式送風機



非常한時局에處하야 滿天下諸賢의幸福을비옵니다 多年間苦心硏究한結果創案된本機가世上에서無限히歡迎을밧음에對하야 感謝하옵는同時本機의出現으로말미암아朝鮮의燃料問題만도일로써完全히解決되얏습니다

青葉鐵工所 京城府青葉町一丁目一八〇 電話龍山(4)一七三八番 振替京城一二〇〇三番

淋疾 糖衣カプセル カーハー

固形油の劇的効果

適應症 急性淋病、慢性淋病、女子淋渴、攝護腺炎、淋毒性膀胱加答兒 (常用スルモ胃腸害ナシ) ●說明書進呈●

代理店 京城本町 山崎大佑堂

旋盤、ボールバン 電氣ドリール グラインダー 鐵工用工具一式

鐵管繼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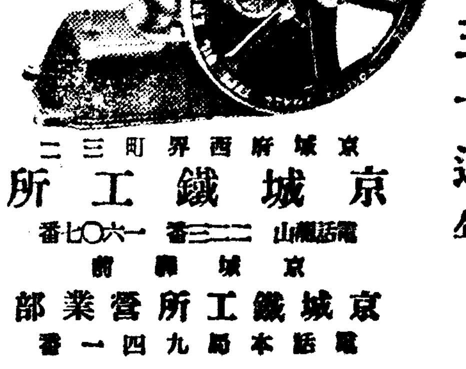
バルブ、コツク、パッキング ボルトナット糸捻 自動車工業材料

カタログ進呈ス御申込ヲ乞フ

京城府北米倉町四十二番地 原田商會 振替口座京城一六八八四番

商報進呈 ラヂオ電器具 仕入ハ ナショナル總代理店 卸商 半島電機社 京城府堅志町

ニノミヤ式石油發動機



創業滿三十週年 記念特價提供 (型錄進呈)

京城府西界町三二 京城鐵工所 電話龍山 二三二番 一六〇七番

京城營業部 電話本局 九四一番

醫師準備書

◇十月十六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公開(一時밤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聖峰映畵園·新興키네마共同作品 ◇佛米獨伊各國輸出封切 朝鮮語全發聲 나그네(旅路) 李圭煥監督作品 鈴木重吉監督 主演 王平 文藝峰

◇佛蘭西제네랄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洋大活劇 流血船엘시노아 監督 빠엘쥬—냔氏 主演 쨘·미우라 르넬·루·비갑

北支大뉴—스上映

桃花劇場 電話(三三三番)

鬪病의要訣은榮養의充實에잇다

如何한病을 治療함에도、우리의身體에 備置해잇는 病을自然히 治癒하는힘을 無視해서는決코治療의完全을期하기는 어렵습니다、特히慢性의 疾病으로에쓰시는분과 胃腸이나빠서 滋養이몸에 붓지안는분은 반다시 이自然治療力의 流用을 利用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힘을增生함에는 如何히하여야 조흔가。그러케함에는 榮養의充實이 第一입니다。그리고 榮養의 充實을 圖謀함에는蛋白質、脂肪、含水炭素、비타민等의補給이必要함은勿論이려니와、就中……

肺結核患者

其他의慢性病患者를爲始하야手術後、傳染病後、產後等으로갑작이榮養이不足한분或은虛弱兒童에잇서서 가장 重要한榮養源은蛋白質입니다。

蛋白質은 우리의 血液과 筋肉을 만드는 要素로서、他의榮養素에는絕對로代用이안됩니다。따라서蛋白質이 不足하면 必然的으로身體가 衰弱하야 自然治癒力의減退를 招來하는것입니다。

榮養補給의目的

에從來、肉類、鷄卵과如한蛋白質性食品이推奬되는理由도여기잇습니다。

그러나 蛋白質은 그대로의形態로는 決코 榮養에되지안코、반다시胃腸에서 消化되야 아미노酸이라고하는 酵素로 變化하지 안흐면 體內로 吸收치안흡니다。

故로多少라도胃腸이나뿐病人은모처럼어든 蛋白質도充分히 消化되지안흠으로 쓸대업시虛費가만습니다。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蛋白質그대로보다는消化가다된 아미노酸을攝取함이 一層有効합니다。

그러고 아미노酸은 榮養源으로서 不可缺할뿐아니라

全身細胞를賦活하는

獨特한作用을가지고잇슴으로 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全身의抵抗力을기르고 榮養作用을自然强力과아울러增治癒합니다。

포리타민이補血榮養劑로서 或은體力精力增進劑로서 現代醫學界에 絕對한支持를밧고 鬪病者、虛弱者間에斷然 第一位의愛用을밧고잇는所以는 實로如斯한効力이 有하는 아직그類가업는아미노酸製劑인까닭입니다。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製造元 大阪市堀上通 大五製藥株式會社

97—894(O)

미친병이낫는 고흔음악소리

간질병의발작도미리막게되고 수술바들때도흔연하다

「이병에는음악을 하로에세번、식전삼십분에 멕이시요」

이러한말대신에

『베-드벤의『문라잇·소나타』를 하로세번식 조용히틀려주시요』

이런처방을의사가 환자에게전할날이 머지안케올듯도합니다。

엇재서그러냐하면 오늘날에와서각국의파학자나 의사들은 음악이우리의정신과 육체에미치는 치료적효과가 얼마나큰가를 열심히연구하는중에 엇스며 사실상음악이 병을치료하는 령역에까지미치고잇습니다。

눈을밝힌다

『음악적선률、즉 아무러케나는 소리가아니고 울릴곳만드러놓은소리는 듯는사람의 시력을 이십오퍼-센트가량 더밝게하엿다。』

이러한 임상보고에의해서 천문학자라던지 세균학자、조각가와가티 시력이정확해야하는 직업을 가진사람은 각금각금 음악으로 귀를씻는동시에 눈을밝게해야할것이다—이러한 말을 로서아의『에스·비·그리곱프』수가 발표하엿습니다。

미친병이나어

『미국 쉬카고 어느병원에서 어느 피아노치는사람이 밋친 이테리부인을 치료햇다 즉 조흔 피아노곡을 드럿드니 환자는 그곡조를듯고 미칠증이 나어버렷다』

이환자를진찰하던 대단한 광폭성을 발휘해서 간수인들이 어찌할줄을 몰랏든것입니다。그런데 피아노곡이 가극일·로바트-로레의 그럴듯한 대목에 드러가게되니까 그저 눈물을 흘니리며 우리애기를 데려다주서요 보고십허요하면서 금방 선한사람이 되어버렷다는것입니다。

간질이나엇다

미국서 정신병과의 의사로유명한이의 보고에의하면 엇던간질병환자(부인네환자엿습니다)하나는발작이 생길만할때에 의례껀자기친구에게 자기가 조와하는음악의 한구절을 연주해달라고한답니다。그래서는 그환자는그음악소리를 드르면 부지불식간에 그발작을 면하게된답니다。

수술에도리용

정신병과의사나 외파의사나치파의사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음악을 그치료 파정에 집어너어볼만한 효파를 엇고잇습니다。어린애들의 광폭성을 음악으로 고친다든지 국부마취로수술을 하는동안에『레코-드』를드려 수술밧는사람의 정신을진정식힌다든지 또 뇌빈혈을 막는다든지 치파에서 치료를바들불유쾌한 의료기구의 마찰을모르게한다든지하는데 응용이됩니다。

광폭한죄수에게

음악료법의대가인 화란출생의미국의사『윌리암、우오올』이란사람은 광폭한죄수로 철창속에가처잇는자와 간수인이 손을댈수업시날뛰는 정신병자에 대해서위험을무릅쓰고 음악료법을행해서대단히조흔성적을 엇고잇다합니다。

직공들일할때

우에서 말한 치료적면에서보다니라 공장노동자의 능률증진을 위해서도 음악연주를 시험하고잇습니다。런던의어느간즈메 공장에서는 경쾌한 레코-드를틀러가면서 일을시킨즉 작업능률이 이십이퍼-센트가량은 느럿다합니다

이상파가티 음악의 치료적응용에대해서 물론드로이 아직은 분하겟지요 어떤사람에게 조흔음악이 반드시 다른사람에게도 조흔 수업을것이고 또악곡의 종류와 악기의 선정에대해서도 세밀히주의하지안허서는 아니될것입니다만 허다한병가운데의대부분은 파도한 자극파 심뇌와공포감이 싸이고 싸이결파라고도할수잇스녹 챙챙동여노흔듯한정신을 좀풀러주고 부드럽게해주는 고흔음악이 병을고치고 또예방하는 효파가잇는것을 의심할수는업습니다。

家庭

"화장하는""격식"

밤과낫이물론다르고 양장과조선옷도달타

화장을 하는것은 조흐나 격식모르는 화장은 안하기보다못합니다

더욱히 낫화장과 밤화장의구별을 지울줄 모르고그냥되는대로 하여서야 어듸 화장하는 보람이잇습니까그리고 양장에하는 화장과조선옷에 하는화장이모다 달습니다。

밤에는 전등불미테서 잘나타나도록— 그러므로 연지도 조곰진하게칠하고 아이샤도— 가튼것도 조흡니다 이러한 화장은 낫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낫에는 어듸까지던지 청초하고 점잔하며 품위가겁게하이호면안됩니다 그야 직업에따라 달으겟지만 분은 얼골외에는 절대로 바르지안는것이 조흡니다

양장을 하엿슬때는 연지가 조금 지터도 조흡니다 그러나 조선옷에는 아조히 미하게 야튼화장을하며 입술연지는 안에서부터 밧가트로 칠해야합니다

밤

밤으로는 조선밤을 처주는데입니다、위선 평양밤속 함종밤(咸從栗)은 본시지나 중부에서 나는것을 수입해해온 것이기때문에 지나밤(支那栗)이라고 하는것입니다。평양근방에서 만히나는데 적기는해도 속껍질이 잘벗겨지고 맛이답니다。일년에 근오백만근식 일본내지로 이출됩니다 가격으로칠십여만원 그저조선밤이라고하면 양수밤을 웃듬잡습니다 이것역시 지나에서도나는데 일본밤과도 이와비젓하지요 속껍질이 일본밤보다는 잘벗겨지나 지나밤보다는 잘안벗겨집니다 밤은 속껍질을 벗겨 날로도 먹지만『군밤』으로도먹고 삶은 밤으로 먹는데 종류에 따라 삶아서 맛이단 놈과 덜단놈이 잇습니다。

밤밥(일본사람들이 해먹는것)을 해먹자면—껍질을 벗기고 끌는물에삶어다치 미린(味醂)이라는것과 진간장으로 들들하게 간을 처두고、밥을잘한되에 술과간장을 밥솟에너코 보통물대중으로 밥을 지어서 밥통에 옴긴때에 먼저의밤과 섞기도하지만 그보다 밥짓는데다가 껍질벗긴생밤을 그대로너코잘한되에대해서 술반흡과 소금조금사시로하나를너코 맹후에는 국물맨드는데쓰는다시마 (소위『니다시지루곱뿌』라는것입니다)를다섯지각되게비어서 더펏다가밥물이다넘길때쯤 해서 열을끄러내고 뜸을들립니다 그래가지고밥등에퍼낼때 잘석거가며 품니다그래야 밤냄새가 조케납니다

전쟁판에서는 못벌리는반비깐

굶구서야싸울수도업는것 군용식료품은엇던것인가

속담에『배가 곱파서는 전쟁도 못한다』하는말이잇습니다。몸을내걸고 전장에서 활약하는 군사들은 사흘이고 나흘이고 숨쉴여가업시 내리싸우는 수가 얼마든지 잇습니다 그런때에는무엇으로 배를채워가며 싸우겟습니까?

◇

전선에서 휴대하는 량식에대해서 특수한 조건이 붓는것은두말할것업습니다 첫재로 가지고다니기 편하도록 가볍고 덩지가적고 상하지안코 당장먹을수잇는것인데다가 영양상충분한요소를 만히가지고잇고 또 누구의비위에나 맛는것이아니면안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게하기위해서는 전장에서 부족하기쉬운성분의 보급에힘써서 식품의선택과 배합을하며 되도록 잘말려수분을업시하야 무게를 덜게하고 또이것을 눌러서 부피를 주리고 또 잘싸서 썩지안토록하는동시에 간조하는동안식물의 영양소가 깨어저 업서지지안토록 충분히 주의해야하는것입니다

휴대구량

휴대구량(携帶口糧)이라는것은전쟁에 나갈때 몸에 부치고다니는것인데 먼저말한여러가지조건외에 먹어서 배가불르고 든든해야합니다。그럼으로 각국에서 비스켓트라고말른빵을쓰며또는 단단한빵、조고만한 말린빵이외에 쌀(精米)에 휴대용간즈메와소곰을끼인것도잇고또쌀로밥을지을때 불씨과연기가이러나지안코 단지열만으로 밥이지어지는휴대연료(燃料)도 껴잇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부피가잇게되고 독와사를맛나 못먹게되는수도잇스속 이보다더 경편한휴대구량이 필요하게됩니다。그러는데는 팽창미(膨脹米)를 압축해서맨드는데 이것은 쌀을쪄서 부플게해가지고 다시또 조고마케눌러서 간즈메를한것입니다。당장에 먹을수잇고 영양가치도부족지안코、또누구나맛나게먹을수잇도록사탕、살구장아찌를껴서 모두가루를맨드러 통에너흔것이라 독와사를맛나도 끗덕업습니다。

휴대마량

말도 배가고파서는 활동할수업스니까 말먹을량식이필요합니다。농후사료(濃厚飼料)와 조강사료(粗剛飼料)를 적당히배합해압착해서맨드러 생철통에넛습니다。

된장과간장

된장과간장을 안먹고는 못배일께니까 이런것을 그대로가지고다닐수업스니까『스푸레이드라이어』로말려 가루를맨듭니다。그리고거기에 다시마가든것을껴서주머니에넛는데 이것을먹을때는 변또그릇가튼데 물을붓고거기에 이가루를타면 당장에 간장도되고 된장국도됩니다 그리고 또 이된장가루와 간장가루를 배합하고 압축해서 맨든것은 미장(味醬)이라고 영양조미료입니다。

말린푸성귀

전장에서는 푸성귀가 귀해서『비타민』의 부족을 이르키기쉽습니다。이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맨드는것이 건조야채 즉푸성귀를 말린것입니다 심금조 난징 우방 이런것을 그빗갈그대로 말린것인데 그것을 물에울구면 먹저대로 싱싱한 야채가되어버립니다。

청량음료수

아모리 치운날이라도 몸을 놀리면 목이 마릅니다。목마른데물이 제일이지만 먹을물이 그리흔찬경우가잇슬것이고 또 물에 독약을타는수도잇스니속 우물이고 함부로 먹을수는 업습니다 그럼은 전장에서는 라무네、사이다—를 맨드는차가따라다닙니다만은 그것을 어더먹을수업는경우가 만흘터이즉 그런때를 위해서 청량음료의원료를 조히봉지를가지고 다니다가 먹을때 물에타면 거품이부글부글끌는사이다를 먹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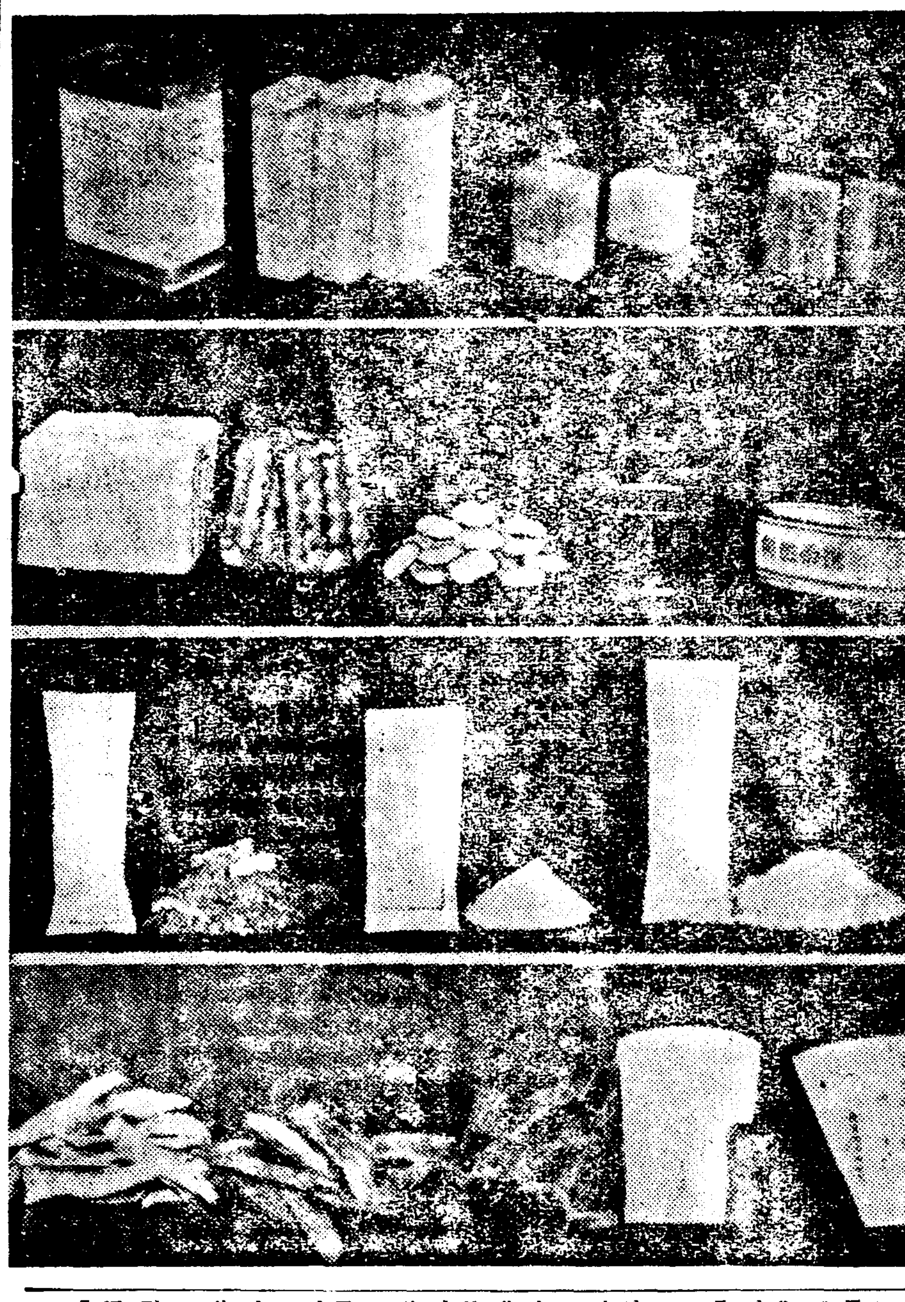
항공량식

땅우에서 살게마련이된 사람들이라 공중에나를때는 사는것이 또다릅니다 비행기우에서언제밥을짓고 국을끄릴 틈이잇습니까 그러니까 먹는것은 경편한것이고 핸들을쥐고도 더운물을 먹을수잇게 수통설비가되어잇는데 먹는것만하드라도 이닥는약처럼『휴—부』에너흔것들이며 또는 비행기우에서 락하산을 메고떠러질때리든지 불시착륙할경우에 우선당분간 먹을양식까지 준비되어잇스며 만일호수가에 떠러젓슬때는 고기를잡아먹도록 낙시대까지 준비되어 잇습니다。

병량환이란것

병량환(兵糧丸)이란것은 부피는아주적으나 뱃속에 드러가면 든든하고 완전히 영양이 되고 또 흥분성과 자극성이잇서 먹은후에 당장기운이나도록할만한 것을 맨들자는것인데 하찬연구중에잇스니 완전한것이 아직업는모양입니다。

우에서말한 모든것이 전장에서먹는 음식들인데 이런것을발명해낼때 얼마나애썻슬까 하는 그공적에대한 찬사는 누구나액기지안흘젠니다만 일청、일로전쟁때만해도 각기때문에 일본군사가 여간고생을 하지아넛답니다。그러나 이제와서는 보통쌀대신에『비타민』『삐』를 보조하고잇는배아미(胚芽米)를 쓰기때문에 각기에걸리는 군사는 거이업다십히되엇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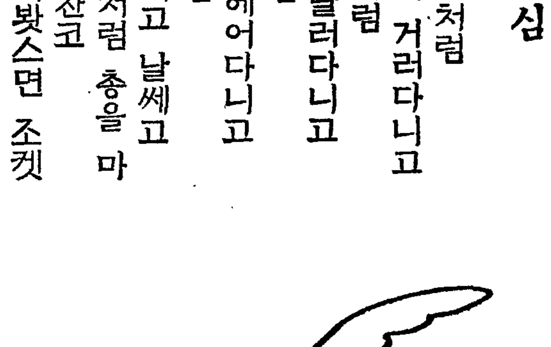
사진은▼맨웃칸、바른쪽으로부터 미장(味醬)휴대부식물 신휴대구량의내용 편에든신휴대구량▼그다음칸 휴대연료 휴대쇠고기간즈메 소형의말린빵 말린빵 포장한빵▼그다음칸 고형감주 휴대술휴대된장▼그다음칸 휴대라무네휴대씨드롤 간조야채

우리차지

욕심

소곰쟁이처럼 물우에서 거러다니고
솔개미처럼 하늘로 날러다니고
잉어처럼 물속을 헤어다니고
사자처럼 기운이세고 날쌔고
『탕크』처럼 총을 마저도 괜찬코
한번이래봣스면 조켓다。

(궁뜰사람 최경진)



먹는버릇도 맛드릴탓

산양철에흔한물새와산ㅅ새고기 영양도되고별미도된다

인제부터 산양철이 시작되니까 물ㅅ새 산ㅅ새의 고기가 여러분의 식탁우에 올르게 될것입니다。봄부터 가을까지 제멋대로 살이 쪄잇는 터라 한때의 별미로는 아조 훌륭합니다。

원체 조선서는 그런 고기를 잘들 조하 하시지 안습니다만은 무어나 맛드릿드니요 먹어버릇할 탓입니다。더구나 요사이는 쇠고기나 도야지고기도 다락가치 비싼판이니까 그런 고기를 대용하시는 것이조흡니다

그런 고기중에서 꿩의 고기아 다른 그 가치를 아는것이지만은 그이외에도 너왜니 곤이니 물오리니 뫼치랙이니 떼찌구리니 다 쌘칫습니다 바른대로 말해서 그런 고기는 일체로 담백질(蛋白質)은 적고 또 고기ㅅ결은 센것이 사실인데 그대신에 비타민은 에이나 삐나 씨나 띄나 할것업시 만히 들어 잇습니다 그전부터도 산ㅅ새나 물ㅅ새고기를 먹으던 기운이 세진다고 하지안습니까? 아마 비타민이 만흔 까닭에 몸을 보하는모냥입니다。또들가나 산ㅅ속에서 겨울을 지내자니 지방(脂肪)도 상당히 준비해가지고 잇슬것이아니겟습니까? 요사이쯤 그런 고기에는 지방분이만흔것도 한 특색이 되겟습니다。

그런데 제일 탈은 산ㅅ새나 들ㅅ새나를 물론하고 그 고기에서 일종의 냄새가 나는것입니다。퀴퀴한것이 구린내도 가터서 첫번에는 비위에 맛지 안는수도 업지가 안습니다。그런데 그런 새들이 저먹고시픈대로 산버레 조그만물ㅅ고기 또 나무열매가든것을먹고 다니는까닭입니다。오히려 냄새가 안나는 닭이나 집오리들속에비하야 그 냄새나는것이 깨끗하고 정한 놈들입니다。

마놀파에 잘 양념만 해노흔다면 그 냄새도 그다지 문제될것은 업습니다。마놀을 안자시는분들은 생강을 너허서 양념을 해도 조흡니다。

실상 꿩의고기로 말하더라도 역시 다른산ㅅ새나 물ㅅ새고기모냥으론냄새가나는것이사실입니다。그걸먹어나고 또 양념을 잘해노흐니까 먼는우리가 냄새가나는지 안나는지 모르는것입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盧春城 作 崔根培 畵 【11】

音樂會 (三)

음악회의 밤은왓다。수십만편들의 조리는가슴은 그시간이 한시라도 속히오기를 기대렷든것이다。

음악회의 장소인 부민관에는 아름 다투어 모여드는 팬들이 경각도 되기전에 만원이되고말엇다。그야말로 입추의여지가업는 공전의 대성황이엿다。

정각이되자、M일보사 류사장의 의미심장한 환영사겸 개회사가 음악회에 개회자는 업스나 이번은 특별한예외로 시작되엿다。조선사람에게 무엇이잇느냐? 우리에겐 별로 자랑할것이업다。그러나 우리에겐 예술이잇다。이오박사야말로 우리조선사람이가진 예술의 천재를 세계에 자랑한 우리의 대표자이다 사천년이나 자라고 못친전통의 조선은 누구보다도 못하지안은 재조와 천품을 가젓다 이오박사는 우리가 · 불으고 십고 노래하고 십흔 조선의 마음과 조선의 아름다음과 조선의자랑을 세게에 불으지즌 우리의 대언자가 안이냐? 오늘날、우리들이 이오박사를 이자리에 마저 그의천재적노래를 듯는다는것은 우리가 조선의 자랑을 한번다시 우리눈압에 보는것이다。또는 조선의 아름다움을 우리귀로 다시한번 들어보는것이다。어찌 오늘밤의 이 음악회가 조선문화사의 한페지를 꾸미는 커다란 호화판이 아니겟습니까?

류사장이 이러케 웅변을토하고 단에나린후에 뒤를이어 오박사가 그씩씩하고 스마-트한、포즈로써 무대에 나타나자 박수로써 그 내가 떠나갈듯이 청중은 장내를마저다。영순의 맑게빼는 피아노소리가 몬저 청중의 정신을 집중식혓다。뒤를이어 오박사는『슈만』、『꿈에나는 우노라』를 불으기시작하엿다。

조선에 밧치는 노래와 아름다움과 정렬을다한 그의세련된 노래—기다리고 기다리든 만도의 팬은 이한시간을 억만금으로도 밧굴수 업다는듯이 귀를기우리고 잇엇다 숨소리 하나들리지안는 정적의장내—오박사는 조선을위하고 또는 조선동포에게밧치는 처음의 봉공이오 정렬이니만치 그의가슴은 감격과 숭고(崇高)와 아름다움에 그만떨리고 말엇다 조선의 땅에 예술의 아름다움을 더지고 오래 못본 고국의 동포에게 정서와 따뜻함과 위로와 사랑을주겟다는 그의마음은 그에게힘을 주고 영감을주어 그의노래를 한층더 빗내게 되엿다。

가늘어젓다 길어젓다 노파젓다 야젓다 물ㅅ결이치신 구슬가치령롱한음조—세련되고 아름다운예술의 극치(極致)하늘에 오르는듯한 시원한 곡조 물에피는장포와가튼 서늘함과 달빗에비치는 장미와가튼 아름다움—말로할수업는 예술의 리듬이장내에 넘치고 잇섯다。참말 오박사의 멜로디는 사람이 가신 가장웅장하고 서늘하고 아름다운 최고의경지(境地)를 넘고잇섯다。예술의 환향(幻鄕)과 도취(陶醉)의 클라이막스—

오박사의 제일곡이 끗낫슬때에는 수천군중은 그만 취하고말엇다。조선이 가저오는 곱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그들은 정신을 일케되엿다。우뢰가튼 박수가 일어나고 또일어낫다。

『앵콜!』

하고 박수는 끗치지를 안엇다 오박사는 이땅의 동무의 소원이면 밤이새도록 하여도 조타는듯시 제일곡을 두번 거듭넛다。다시 장내가 문허질듯한 박수아래제이곡이 시작되엿다。『빠벨』작『인도의비가』이엿다。

오박사의 얼굴은 일종 숭고하고 정렬에넘치고 잇섯다。마듸마듸옥이오 구슬이오 꼿이듯 —수천 청중의 마음과 육체는 모다 불이되고 열이되여 예술의 독안이에 녹아버리는듯—그애롯한 멜로듸에는 그만눈물이 날듯하엿다。마음이약한 녀자들은 까닭업시 눈에눈물이 매첫다。『참 잘한다。』『과연 세게적이다。』이런노래는 처음이다。』

하고 청중은 속삭이엿다。『멘들손스』의『오월은 님과함께 마스리』『구노』의『향기로운 내사람』이라는 노래가 잇슨후에『고국에도라와서』라는 노래는 한층더 청중의마음을 취하게 하엿다 청중은 자기들을이저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저버리고 다못이노래에 온존재를 빼앗기게 되엿다

내고향 못이저 회파람 불엇오
이땅에 빗난날이 나를 마즐때
아 즐거워 눈물조차 구슬가티고아라

이노래가 끗칠때 청중은 미친듯이 또한번 박수를 하엿다『쇼팡』의『가난이의눈물』과『멘델스손』의『일요일의노래』와 기타 메데 노래가 잇슨후에 음악회는 끗치낫다。

『오박사 만세!』

하고 불으는 사람까지 잇셧다 박수는 다시 우리가티 울리고 감격과 도취에어린 군중은、회가닷날후에도、잘헤여지지 안헛다 그러케 만흔 즐거움파、감격에、처음이엿다 음악회는、조선이 잇슨후에는『혼』이잇섯고、조선사람의 감정과、기쁨이 잇셧다、영순도 얼굴이 벌거케 취하여、단숨나려와다。경순은、눈물이 날만한 감격을 밧고、오박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엿다。

貴女の肌に1番よい白粉

당신의살결에제일조흔백분

살결을保護해서特別히 아름다운化粧이되여!

特種美容成分을包含하지안는白粉인만치본살의色調를充分히살려서明朗한化粧이되게합니다

그래서어느분게나알맞고훌륭합니다

바듬·保存第一

粒子와 色素에 特別한 新研究를 加햇고 또 特殊한 美容成分을 配合햇스므로 바듬 保存은 가루白粉中第一입니다

가장明朗한色調

東洋人의 肌膚에 第一잘맛는 粒子에、살결에 第一조흔 色素가 均一하게 配合되여잇스므로 實로 明朗한 化粧이됩니다

芳香이 정말훌륭해

芳香은 舶來品以上이라는 大評判! 그明朗한 色調에다가 달콤한 香氣를 풍기고잇서 퍽장합니다 試用해봅시요。

明朗近代色八種
白色 부룬
肌色 나츄렐
濃肌色 오-클一號
健康色 오-클二號

正價 五五전 三〇전

ウテナ粉白粉

ウテナ化粧料本舗 株式會社 久保政吉商店

12.10-S.6

鍾金機

文化人의 自己辯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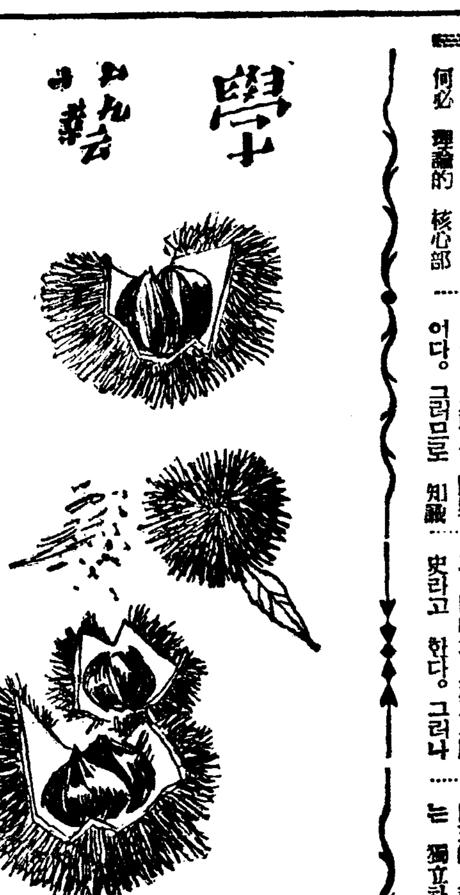
柏木兒

自體氏의「人間論」은 現在 五六年에 나는것인데 어떠한 人間學이라니 어떠한人間學的(Anthropologismus)根據가 잇는지는 疑問하지만으로 잘 모르겟스나「風流人間」이니「文化人間」이니「知識人間」이니하는 術語가「風流人」「知識階級」「文化群」으로 더부러 何等의 槪念的區分이 업시 擬用되는것을 보아 氏의 말하는「人間」이라는 것이 어떤 槪念을 가진것이며 또는 人間이란것이 무슨때문에 何必 理論的 核心部가 되엇다하는것도 理解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엇더하든지간에 氏의 一年間 論理的 渠蹟이 全部 이人間論을 에워싼것인데 그동안에는 文化人의 辯護이니 知識階級의 辯護가 니하는 말을 만히 썻는데 氏의 所說에 依하면 知識階級은 上下兩階級間에 끼여잇기를 마치 齊楚間의 滕國가태서 事實와 事變으로 一貫한 近代知識階級의 歷史는 屈辱과 羞恥의 歷史이다. 그러므로 知識人間은 이러한 屈從의 羞恥를 버서나 文化의 獨立 知性의 自由를 獲得하기위해서는 一切의 政治的干涉을 버서나야한다고 하고잇다.

그러나 偉大하는 人類에 文化인것이 생긴뒤에 文化가 언제 한번 政治와 떠러저 獨立한적이 잇섯는가? 또 언제한번인들 文化가 政治에 屈從한 羞恥의歷史를 가지고 잇는가? 氏는 唯獨히 近代라는것을 잡어가지고와서 文化는 우에階級을 섬기다가 다시 아래階級을 섬기고 또다시 아래階級을 背叛함으로서 反逆者라는말을 드른 屈辱과 羞恥의歷史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氏自身의 說明이라면 몰나도 적어도 文化人全體의 이야기는아니다. 왜그러냐하면 文化란 본래 政治的權力圈안에 잇는 것임으로 그存立한 政治的體制가 安定되엇을때는 何等의 疑惑性이 업시 發展하다가도 그 體制가 根本的으로 動搖될때는 文化그것의 가지는 自主的 志向性(이말은 文化의 獨立을 말하는것이 아니다)이 그 存立한 政治的體制에서 다른 階段으로 移動하려는傾向을 가지는것이다. 그러는동안에 政治的 關係가 變形을 하면 文化그것도 變形을 하는것이고 그러치못하면 文化의 自主的 志向性만으로는 獨立하지못하는것이 過去數千年間 人類歷史의 普遍的 原則이다. 이러한 現象을 가지고 氏는 말치 文化란 政治의 捕虜와 가티 생각하고 文化人이란 政治家의 走狗와 가티 생각하고 이러한 羞恥를 버서나는 모양이나 우리文化人은 정말 이러한 罪目으로서 氏에게 辱說듣는것을 도리혀 羞恥로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文化人은 일직이 한번도 事務를 事務로 하드시 文化를 가지고 웃階級이나 아레階級에 對해서 賣春婦가티 섬긴 일은 업서기때문에.

×××

學藝



局外人의 一家言 ③ 歷史哲學에의關心 ─分析으로부터 綜合에─ (下)

韓雪野

그런데 이全體的綜合的研究에 잇서서 의가장 根本的인 것은『世界觀』이다 世界觀은새로 開拓될 歷史的綜合에잇어서 가장 重要한核心인것이니 우리가 恒常 史學界에 待望하는것은 實로 이世界觀의 關心인것이다.

「綜」 그리하야 文化科學的歷史家卽 科學者 藝術史家 宗教史家等特殊研究家는 그特殊한收穫을 全歷史過程의 全體作에 結付시키라는 關心의增大와 그들이 各各의文化科學的 抽象에 依하야 分離分析한 諸部門을 相互關聯시키라는것과 經濟的社會的世界와 精神的世界와를 關聯시키라는것과 또는 藝術 宗教 科學等과如한 各種의精神的諸領域과 客觀的現象과를 對照하라는

「方」 法的處理를 ... 잇서서 ... 卽 先進史家들에依하야提起된 이러한 歷史哲學的關心을 우리들의 史學界도 마땅히 가지기를 우리는 待望하는것이다.

近日 韓植氏가 歷史文學의 再認識을 提唱하고 잇거니와 이 小論과도 多少關聯이 잇는問題이니 꼿호로 史學과 文學에 對한 若干의 私見을 한마디 附加하는것을 許한다면 나는 여기서 歷史文學의 最高峰인 쉑스피어의 文學을 들어 史學과文學關係를 若干말하는바 잇고저 한다.

그의文學을 評하야『雍塞巨大한 建築이 무너지는것을 보는것갓다』고한 어떤 評家의말을 읽은記憶이 아직도 새롭거니와 그는 實로 市民社會의 搖頭아래에서 무너저가라는 巨大한建物 ─ 封建社會를 證見한것이다 그러타고 그는

「封」 建社會의 咀呪者도 아니오 資本誕生의 謳歌者로 自處한것도 아니다. 다만 그가 歷史를 보는눈이 너무도 밝엇던것뿐이다. 그리하야 그는 時代의 推移와 階層을 그 史學가보다서 누구보다도 明晰히 發見할수잇섯던것이다.

卽 그의作品은 그의作品속에 더 머지 時間的으로 前後에 펼처진史的全體의 한개의 通過點으로 浮彫된것이다. 이通過點에서 前後가 가장 明瞭히 보이는것이니 그러니만치 그의作品은 如實히 그時代를 捕捉하엿다고할것이오 따라서 쉑스피어의偉大性도 여기잇는것이다. 우리는한때 롤스토이와가티 그의 作品의 史的意義를 發見하는때 必然的으로 再認識의必要를 늣끼게되는것이며 또 그作品이 오늘까지 그누구의것보다도 人口에 膾炙되는理由를 알게되는것이다.

「作」 品을 ... 다시 그作品이 잇...

다음으로 스코트를보면 그는 라스킨의 말과가티 人間에 關한知識에 잇서서는 到底히 쉑스피어의 比가아니고, 運命의 轉變하는原因이며 그過程을 洞察하는 點에 잇서서는 더욱 쉑스피어에 밋지못하지만 그러나 그는中世의 雰圍氣를描出하야 스스로 그가운대서 산데잇서서는 아마 쉑스피어도 三舍를 避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그만치 스코트는 中世의 全體的인 相貌와 呼吸과 脈動을分明히 眞摯히 捕捉

「史」 그러타고 作家는 반듯이 史家의 뒤만 따라갈것은 아니겟지만 그러타고 作家는 面目이 잇는것이다.

創作과 態度 世界觀의 再建을 爲하야 (二)

任淳得

나는 나의妨害者에게 拘泥할것이업시 이야기를 前進식히겟다 歷史그것의 正當한理解는 眞理와 마찬가지로 唯一한것이다. 그리하야 이것은 단하나의 올흔世界觀에依하야 到達되고 이世界觀은 作家는文化人으로서의 自意識을 正當하게 保持할수잇다. 世界觀은 제각기의업는들이 제대로의主張을하는것처럼 雜多하게 同一한正當性을 主張하는 것이아니다. 사람들이 眞實을사랑하면 할수록 가장올흔世界觀에로 自己를接近식혀간다.

우리는 途中에서부터 어느指定에서부터 對象의思索을 引繹하여서는 안된다. 作家의問題에잇서서도 그가 作家인데에서부터 出發한다면 어느論議도 闡明되지안하는 危險을 갓게된다. 우리에게는 作家인것은 한개의社會的歷史的人間이다. 그러므로 그가 文學的作品에依하야 創作的인그의生命이持續된다는것을 엇지안힘피하게 그가各各이相異한程度에서나마作家로서 文化意識을가지고잇고, 狹小한意味에잇서서의 인테리겐차라는點에서, 그가 一定한 世界觀에까지 思索의段階를 高度로 갓는다는것을 首肯한다. 그러므로 作家에게잇서서는 世界觀을 갓는다는것 가질수잇다는것은 말하자면 한개의生理的인것이다.

이것에서부터 나에게는 다음의것이 明瞭하여진다. 卽 文學에잇서서도 世界觀은 어데까지나 根源的인것이다. 文學은 한개의 槪念으로서 存在하는것이 아니고 社會的歷史的文學으로서 具體的으로 論議의對象이 되기때문에 文學에對한正當한理解는 文學의主體ー作家를 包含한것으로서와ー와客觀的의 不可分의關係에서 把握되기를 要求하고 따라서 可能한 文學의 具體化는 그것의 世界觀이 原理的인 意味에서 根源的으로 決定性을 띄이게된다.

나는 回想한다. 맑쓰主義的리알리즘」의 問題가 問題되엇슬때 어떤經濟學者사람들은 世界觀과 文學上의方法과를 機械的으로 分離하야노코 그것을 이 作家에잇서서 絕緣的으로잇슬수잇는것가티 幻想하엿다. 그리고 東京에서 德永直氏가 그러케 辯證法的唯物論을 공부하엿스나 아무런 文學上의 所得을 엇지못햇다고 이제는 엄을을獲得할 森山啓氏에게 이곳의 世界觀을 갓기를 怯내는者, 文學의 醜한 臭香을呼吸하기만 할기는者……들은 저와란듯이 文學上에서의 世界觀無用에 손벽을 처보내엿섯다.

方法의問題를 世界觀의問題에로 還元하는것은 明白한 誤謬다. 그러나 그와同一하게 方法의問題를 世界觀의 問題로부터 機械的으로 分離하는것도 誤謬이다. 世界觀이라거나 이데오로기ー면으로는 小說을쓸수업다하야 이點만이 小說家의 特殊性은 아님은明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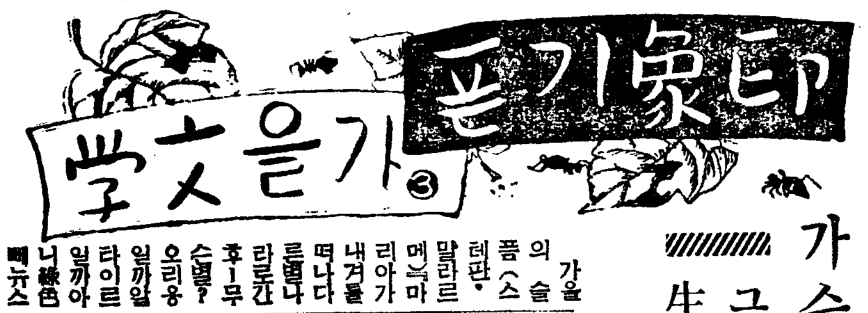
文學은 社會的 具體的으로는 이데오로기ー다. 그러므로 世界觀을 通하야서 創作이完全하게 되는것과 한가지로 世界觀은 創作을 通하야서 完成된다는 相互浸透를 無視하고서는 創作ー 따라서 方法의 問題와 世界觀의 問題에서 사람들은 절름바리의 理解밧게 엇지못한것이다. 레아리즘만으로는 決코 片片의現實에서 아모리 優秀한形象을通해서라도 그어느것도 文學化할수업다. 片片에 耳해서만 그것은 至極히狹小한 限界에서만 的일수잇슬지어정 한개의 文學으로서 成就되지는못할것이다. 그 레아리즘의眞實의客觀性은 世界觀과方法과를 機械的으로 分離하는데서는 想像할수업는 題目이다. 社會主義的 레아리즘을 레아리즘一般과 同一視하여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톨스토이, 고ー고리, 발작크, 세르빤테스等을 引例하야 文學上의 方法의 世界觀에對한 無條件을 主張하기를 즐겨하지만, 아무도 世界觀만으로 創作이可能하다고 하지는안는다. 그리고 世界觀의 不徹底를 理由로하야 文學作品을 그냥 否定的으로 評價하지도안는다 方法에對한 世界觀을 原理的인意味에서 根源的이라는것은 그리고 方法과 世界觀과의 複雜微妙한 關係라는것은 발작크 고ー고리들의引例로因하야反駁되는 눈꼽만한餘地도업다.

方法은方法일뿐이다. 方法으로서는 文學上에잇서서도 哲學上에잇서서와가티 이를테면 레아리즘은 反映한것이다. 文學에잇서서 現實의反映은 決코「客觀的現實의反映」一般을 云爲하는것이아니고 如何한現實의反映인가를 云爲할것은 明白한일이다. 이때에 우리는 世界觀과의 關聯업시 아무런 文學上의 方法을 論議할수 업슬것이다.

漢詩募集

題 紅葉
押 春
限 十一月五日

印象기른 가을文學 ③



가슴에남은가을詩痕 그러나사랑하는그한손업시 生命水를어듸가길어오랴?

李軒求

가을의 슬픔(스테판·말라르메)의 마리아가 내겨를 떠나다른별로간후ー무슨별? 오리옹일까 엄타이르일까 綠色빼뉴스일까ー나는 다하일수업는 孤獨을 사랑햇다.

괭이와 더부러 홀로 지내엿다 괭이는 나에겐 하나의 神秘로운作侶 하나의 精靈이엇다 ... 업다 이러케 기나긴 날을 괭이와더부러 그리고 拉典의 데카당詩人을 親友로 홀로 지내엿다. 純白한 그女人이 내게서 떠난후 異常히도 怪奇롭게 나는『滅落』의 입홉으로 歸納되는모든것을 사랑햇다. 一年中에도 내조와하는時節은 저 쓸쓸히 가을로 옮마가는 느즌여름의 支離한 그날그날 中에도 내가슴겨散步하는때 살아지랴는夕陽이 灰色담벽에는 黃金色으로 물리窓에는 赤銅色으로 新時쉬는그時間이다……

나는 한便손으로 사랑하는詩人 한便손으로 純粹한動物(괭이)의털을만지면서 忽然 窓아래『오르그·드·바르바리』의 哀調를 듯게된다 자라모르는「손風琴」가 애달피 서럽게귀에 들렷다. 音樂소리는포플라느러선 널븐길에서 들려온다 포플라숲그리고마리아가 獨人됨에 讚美되여 마조막떠나간 날 ... 되여 마조막떠나간 ... 다. …괴아노는機嫌하고 빗을 쓰러가슴에 빗춰더한다. 그러나『오르그·드·바르바리』는 退廢의黃昏에서 나를 몹아 絕望속에잠기게한다, 아모리 이果樹가快活한俗謠의 한句節, 거리로 홀러다니는 뭇노래를뜻는다기로 이러케 내가슴에숨여드러로매뭑한 노래와가티 나를울게하는것일가…… 나는차근히 그노래를 싯는다 그리하야 心亂하기를두려워하는냐, 도그노래뿐이요 노래뜻는사람까지 알려하지안는나입니다 도한곡조도 털지주지안엇다『말라르메』의散文詩ー크게소리치지

아니하고 걸게感傷하지안는그속을 흐르는 사랑하는사람을 일허바린詩人의 가을의슬픔이 마드마드 가슴에 숨여저 소리업시 떠러지는落葉과 가티 서름을자아낸다, 나는몃번이고 이詩를 사랑하야 울펏다

一

가을노래 (보ー들레ー르)

나는 한便손으로 사랑하는時節 ...

일까ー 나는 恒常孤獨을 사랑햇 다하일수업는 기나긴날을 나는

나도 이제 그대 慘情도 陳 ...

내 넉슨여세고 무거운疏櫃에 허므러지는 城樓와도갓거니 나무찍는소리도 내게는무서워 斷頭臺싸키보다도 더鈍重한이 音響。

어듸서 慌急히 棺우에 못질 하는듯…… 누구를?ー어제인여름을, 때는 가을이니 이神秘로운소리는 葬送의鐘聲 이러포

二

내 프른게빗나는 그대 긴明眸를 사랑하건만 오늘 랍스러운그대아름다움도 은 쓰리쓰거니

바다에 빗나는 太陽을못따르나니

徒勞! 여기貪婪한墳墓가 기달리나니 내이마를 그대무릅에언고 炎熱의힌여름을 설어하며 다사로운 晩秋의 누른해볏을 맛보게하라!

그만은 가을의詩歌中 이詩와 가티 懷切하게 戰慄과 嫌然味를 늣끼게하는것은 다시도 업슬것이다 나의 移植한서투른 文字가 骨髓에사모치는詩魂의閃光을 減殺하엿슬뿐 悚懼하다마는 여기 抄錄두詩篇속에서 우리는 오갓가을의 感情의 兩極을맛볼다 고요하야 부끄리오르는 슬픔과 마치로떼러 빼아픈 顫動속에 벌거버슨 斷末魔的 生의 執着!少年詩人『랭보오』가 『季節의地獄』中에서 가을을 노래하면서 最後에『그러나 사랑하는 그한손이업시!生命水를 어듸가 길어오라?』는 一句를 두고두고외어본다 이것이 가슴에삭여진가을의 詩痕이라고할까?

紀行 匡廬歸來記 일허버린故鄕을차저서 (一)

李秉珏

수나ー

내가 열다섯에 故鄕을 떠나서 이날수ー코스모포리탄으로 自認한지도 이로서 十年이 넘엇소 그러나 해가거듭하고 철이 들면 들수록 故鄕은 어머니처럼 그리워지는것이요

이러틋 그리웁던 故鄕을 차저서 길떠나는 마음은 웬일인지 무척한짐을 지고가는것갓소

수나! 나는 旅行을실허하오 旅行에對한 準備를 가지고잇소 그러나 故鄕을 그리워하면서도 故鄕에가기가 실타는것은 내天性인 準備가 아니요 그보다도 내가 차저가는 故鄕에對한 나의知識이 지나치게 徹底한까닭이라고 생각하오 그곳에는 아모런 新奇도 업슬게요 내知識의 圈外에 나설만한事實이 하나도 업슬게요 내가 생각하는것과조곰도 다름업는故鄕일게요。이러케보잘것업는 故鄕에로 내天性인旅行의準備를 참어가면서까지 가기는실소。더욱 바꿔주는사람조차업슬 그곳일까ー

공갈못

수나! 서울서 밤열한時十五分南行車를 타고 金泉에나리니 부여ー케 날이새엿소。여기서 慶北線을 밧구어타고 그만잠이 드러 버리엿소。오슬오슬차가운 ...에 못이겨 잠을깨니 해가 몃 ... 고 안개는 거치기시작하얏소 車안에 손님이 五六人밧게업스니 쓸쓸하오 더욱 늣가을아침의차늘한바람이 스며드오 車는 지금크다란 湖畔을 달리고 잇소 이못이 有名한 尙州咸昌의 공갈못이요 어느때인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들리던 傳說의 못이요 나는 이못에서 蓮人밥을따던 처녀들의 로맨티한 옛이야기와民謠를되푸리해보앗소。

못기슭갈대그늘에 쪽배가 조을고잇소 이것이 낙시배라면 이 못에 고기가사는것을 짐작할수 잇소。湖水를 보지못하고 자란 나는 이러케湖水를 보면 湖水인냥생각되오。안개가 자욱하야 저편은 보이지안소。

그윽한 늣김이요 엇저면神秘롭기도하오。

공갈못이 眼界에서 사라지자 車는 다시 끗업시 넓은벌을달리고잇소 보이는것 모두누러케 익은 벼 벙 벙 어슬렁음의 매리지는 소리가 들리는것갓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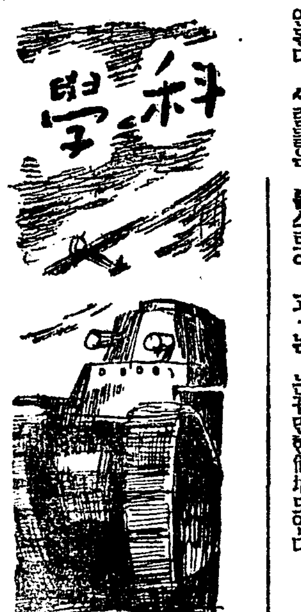
이것이 慶北의 穀鄕으로 일홈난 尙州人벌이오。때는 아츰나절이 훨신넘엇는냥 普通學校 아히들이 車에 오르니 車안은 떠들석해젓소。

車掌을 誘惑하던 車掌에게 普通學校通學하는 少女하나가 問招를 當하고잇소。少女는 울기만하고 車掌은 욕을퍼붓소。事實을 아라보니 이少女의동생이 定期乘車券을 이저버리고 車를 탓는데 동생의 탈날것을 볼수가업서서 自己의乘車券을 동생에게 빌녀주고 自己는 車掌調査에 걸리게되엿든것이요

그리하야 이實狀을全部自身이 더맛터서 事實을말하지도안코 울고만 잇는것이오。車掌은 少女의 事情如何를 不問에부치고 規定을 바때로 입에못담을 욕을퍼부으며 少女를 威脅하얏소 나는車掌에게 어린이를 威脅하지말어달라고 溫順히交涉을 해보앗스나 車掌은「당신이무슨상관이냐」는듯이 不問曲直 語調가 재벌村官吏가 百姓을對하는듯。나는 그少女의다른곳에서 나를엇까지의 車票를사서少女에게주어주고 걱정할것이 업다고 달래여주니 少女는멋가보다 더소리를 노피서 울기시작하얏소。나는 여기서 이것을 보고서는 車掌을 그냥둘수 업서서 그만 여러어린이와 乘客이에서 前後事情을 따지고 그의 役人的沒常識을 꾸지저주엇소 事理가뚜렷하고 내말의 論理가바른 탓인지 乘客들의共鳴이잇서서그로하야금少女에게謝過를시켯소。

수나! 눈물겨운일이오 어린이들은 車掌을 대단히 무서워하얏소 그들은 家庭에서 아버지를 學校에서 先生을 車안에선 車掌을 이러케 무서워하며 자라나야만 할것을생각하니 나는 다음停車場에서 車를내리는 그들의 뒤모양을바라보고 눈어귀가 뜨거워젓소。

科學



投下爆彈의彈道와…… 爆◇擊◇照◇準◇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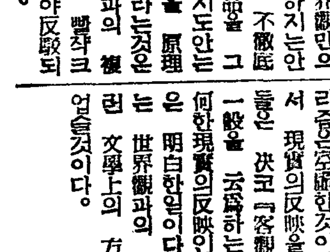
(사진은 一千瓩의投下爆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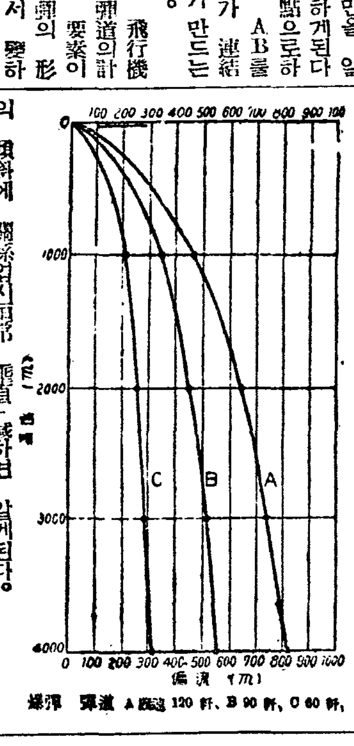
投下爆彈의彈道

落下爆彈의 彈道는 空氣의抵抗力과 地球引力의 두힘의 影響을 바더가면서 進行하는것이다, 圖中 A點으로부터 떠러진 爆彈은 外力의作用이업스면 B點에落下한다, 航行中의 航空機로부터 爆彈을 落下하면 航空機와 同一한 方面의 初速을가지는때문에 垂直下보담도 前方 C點에 떠러진다. 다시바람이잇스면 C點으로부터 더偏流한다, 卽 追風이면 彈道는 AD가되고 迎風일때는 AE가된다. 飛行機가 進行하려는 速力과 風速이 平均하면 爆彈의 初速은 零으로 彈道는 偏流作用만을 바더 AG와가티 後方에 떠러지게되는데 이러한 大風에爆彈을 投下하는例는 거의업다.

飛行機의 速度와 風速만을 알게되면 彈道는 自然定하게된다 가령 지금 D를 着彈點으로하고 A로부터 落下해서 AB를 垂直線이라고하면 AD가 連續되는 直線과 垂直線과가 만드는 角BAD는 照準角이다. 彈道는 曲線인때문에 飛行機의 目標上의 노피는 彈道의計算에 들지아니하면안될 要素이다. 바람의 偏流는 爆彈의形狀과 落下速度와에依해서 變하는 固有값의것이다.

그럼으로 照準角은 飛行機의 速度 風速及高度를 測定하면 特製의表에 依해서 알게된다. 目標가 直下에 오기전 다시말하면 照準角만 빨리 爆彈을 遊離식히면 命中彈을 엇게되는것이다.





爆彈 彈道 A 速度 120 粁, B 90 粁, C 60 粁,

爆擊照準器

照準裝置는 여러가지잇스나秘密이만타 지금 獨逸「게르츠式」爆擊照準機에 依해서 照準法의 槪念을 說明해보기로하자 이照準照準機를 想像하는데는 潛水艦의 潛望鏡을 적게해서 一米 크기로 생각하면 大過업다. 卽 潛水艦에잇는것은 下로부터 드려다보아 對物鏡으로 上界를 仰俯식히면 天上界까지 順次로 보히나 이것은 天上界로부터 下界를 내려다보는것으로서 潛望鏡의 略略은 乙字形을 꺼꾸로 그리는 鏡路이다.

飛行機의 傾斜에 關係업시恒常 垂直으로 使用되도록 自在環을 가지고 飛行機에 水準器를 備置한다 그래서 핸들로對物프리즘을 俯仰해가면서 目標를 捕捉하는것이다. 프리즘의움즉인 角度는 接眼位置附近의 표에 나타나게되여잇다. 目標가 左右視界外에 버서나면 望遠鏡을 그 垂直軸을 中心삼어 돌리면 그 動作이 電氣的으로 傳해저 操縱者의 速度는 매우 적은것이다. 初速은 飛行機의 地面에對한速度인때문에 이것을 測定하는데는 地上의 固定點上을 다리나면서 照準望遠鏡을 서서 目標에 對한 視角의 變化에 要하는時間으로부터 算定할수가잇다. 望遠鏡에 秒時計가 부터잇는 때문이다 다음으로 風速은 飛行機의 空氣에對한 速度를 速度計로서보고 飛行機對地面의 速度를 ... 그래서 이三要素에 基한 計算表로서 照準角을 決定하는것이다. 그리고 이照準角을 望遠鏡의 照準표에 맞추면 爆擊準備는 完成되는것이다.

그래서 爆擊目標의압 二三秒에서 目標를 視界안에 드려오도록한다. 이動作은 航空表示機에 낫타나 操縱者는 飛行機를 操縱者正面의 電流計에 指示를주어 操縱者는 爆擊手의 希望하는 方向대로 飛行機를 돌릴수있다. 目標上으로 引導한다. 機體가進航하는데따라 視角은 刻刻으로 照準角에 各가워간다 視角이표에나타난 照準角에 一致하면 指針이 一定한곳에 드러오는 그 刹那에 爆擊手는 投下裝置를움직여 爆彈을 떠러트리는것이다

移動目標의 境遇에는 좀더複雜해지는것이다. 그럼으로 高速艦隊를 爆擊하는것을 練習하는 海軍機가 靜止目標인 地上陣地를 爆擊하는것은 매우 쉬운일이다. 그러나 날어서는 안될租界가 周圍에잇서서 코ー스의安定을 엇기어려운 市街戰應援파 가튼것은 能力을 가지고도쓰지 못하게되는것이다. (1記者)

雜記帳

傳說에서차즌 原始社會 (新羅의六村)

三國史記의 新羅本紀를보면 그 처음에 辰韓六部라고해서 閼川楊山村, 突山高墟村, 觜山珍支村(或云干珍村), 茂山大樹村, 金山加利村, 明活山高耶村을 들엇다. 三國遺事에는 大村에對한 記錄이 좀더 仔細하니 閼川楊山村은 及梁部로 中興部라 改名하고 突山高墟村은 沙梁部로 지금의 南山部요 茂山大樹村은 漸梁部 또는 牟梁部 지금의 長福部요 觜山珍支村은 本彼部로 지금의 通仙部요 金山加利村은 漢岐部 또는 韓岐部로 지금의 加德部요 明活山高耶村은 習比部로 지금의 臨川部라고 하얏다. 그러면 실상 여기서 말하고자하는것은 바로 그다음에 繼續되는 이야기로서『今俗에 中興部를 어머니, 長福部를 아버지, 臨川部를 아들, 加德部를 딸이라고하나 그 實相은 모르겟다』고하는 그것이다. 이 수수꺼끼를 이야기속에 밝히 原始史의 한토막이 숨어 잇스련만 三國遺事를지은 그사람의 時代에 잇서서도 벌서 수수꺼끼의 한傳說로 떨어저 참까닭을 모르게 되얏든 모양이다.

그런데 몰간의『古代社會』를 보건댄 오스트랄리아의 카미라로이 種族은 男子편으로 잇파이, 쿰보, 무리, 굿비와 女子편으로 잇파타, 부타, 마타, 카포타等 여덜개의 婚姻階級이 잇서서 반듯이 잇파이는 카포타, 쿰보는 마타, 무리는 부타, 굿비는 잇파타와 婚姻한다고 하얏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딸은 어찌 되는고하니 첫패의所生은 무리(男)와 마타(女)로, 둘재ㅅ패의所生은 굿비(男)와 카포타(女)로, 셋재ㅅ패의 所生은 잇파이(男)와 잇파타(女)로, 넷재ㅅ패의 所生은 쿰보(男)와 부타(女)로 된다는것이다. 萬一 그婚姻階級互相의 寸數를 따진다면 잇파이는 아버지, 카포타는 어머니, 무리는 아들, 마타는 딸로된다。또 그와 가치 쿰보를 아버지, 마타를 어머니라면 굿비는 아들, 카포타는 딸로되고 무리를 아버지, 부타를 어머니라면 잇파이는 아들, 잇파타는 딸로된다. 이것을 가지고 몰간은 푸날루아式 婚姻의 한 變態한 形態라고 보앗다. 卽 몰간의 分類에 依하야 血緣婚의 다음이요 對偶婚의 먼저로 獨特한 家族形態를 構成하는 婚姻制度다. 新羅四部의 父母子女關係가 이와 一脈相通되는 點이 잇슬까? 업슬까?。(袋山)

漢詩 (編輯者選)

題 秋夕
押 明

佳作

元山 鄭鳳奎

百果初嘗五穀成·佳辰佳會自升平·
俗情白酒黃鷄足·天氣金風玉露清·
公道難堪頭雪白·年占幸免腹雷鳴·
夜來更有無窮趣·萬里長空月最明·

新刊紹介

◇週刊太陽 第十七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의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一部五錢

御愛用御禮 써ー비스세일

조흔사본에고흔景品

銀座流行의化粧袋 進呈

사시는분께 資生堂石鹸三個入一函式

專賣特許第一〇一二三號

살결을속속드리곱게하는 資生堂石鹸

東京 銀座 資生堂

團成社 自12日至16日 料金 大人30錢 小人20錢
(1) 라모나 10·30 2·20 6·30
(2) 支那事變特報 京日·大每·朝日·讀賣 11·50 3·40 7·50
(3) 見故の春 0·20 4·20 8·30 (12日13日兩日間)
(4) 女性の勝鬨 0·20 4·20 8·30 (14日부터)

若草劇場 十四日ヨリ七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東寶映畫超大作『主婦の友』連載菊池寬原作 成瀨巳喜男監督 入江たか子、高田稔、竹久千惠子、逢初夢子
▲禍福 (前篇)
パラマウント本年度超大作 ルウベン、マムウリアン監督 アイリーン・ダン、ランドルフ・スコット、ドロシイ・ラムーア主演 ▲たくましき男
東日大每 支那事變ニュース パ社短篇 色彩漫畫 ロッキーの風車小屋

日活 13日ヨリ17日マデ
極樂三度笠 9·20 6·40
多摩川青春部大爆笑 娘三十人 10·30 3·30 7·50
大每讀賣 支那事變 12·30 4·30 8·55
阪東妻三郎主演 戀山彦 後篇 12·45 4·45 9·10
各席全部 大人50錢 學生小人30錢均一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北支大뉴ー쓰上映
決血船엘시노아 主演 ...

第一劇場 ◇十月十二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
現代名畫 幸福の素顏 主演 佐野周二 高峰三枝子
나그네 (旅路) 主演 李圭煥
柔港 傑作品

東洋劇場
大悲劇「杏花村」
新版「雙玉淚」
「貧富의境遇」
「棄兒一個二萬圓也」

호프킨스의 新婚懊惱

數年前 오-스틴·퍼-커-와離婚한以來『獨身』을 發明하고 專혀 銀幕의길에만 精進하고잇든 미리암 호프킨스가 最近 突然히結婚을해서 허-리웃드의 界隈에 話題를 提供하엿다. 結婚의相對는『最後의戰鬪機』를 監督한 로시아 出生의『아나톨·리트박크』監督이다. 호프킨스가 리트박크를 알게된것은 彼女가 론돈서 『男子는神이아니다』에 主演하기위해서『노르만듸-』號로 英國에가는 船中이엿는데 그뒤로 두사람의 사이에는 로만스의꽃이피게되엿다.

그러나 처음 一週間동은 리트박크氏는 彼女가 當時 有名한 호프킨스인줄을 알지못하엿다는 에피소-드도잇다.

호프킨스의 近作은 RKO에서 만든『에스카드릴』인데 이것은『리트박크』가 監督한것이라고하니 이야말로 名實共히 絶對의『名콤비』라고아니할수업슬것이다. (寫眞은호프킨스)

趣味 娛樂

團成社의 大改革

館員의大量整理와 今後의對策이注目處

市內團成社는 今春以來諸般事情으로 收支가 맛지안허서 深刻한 經營難에 빠저서 그동안 歌劇에의 轉向을 圖謀하야 劇團組織을 計劃하엿스나 이도亦是成立前에 失敗를 보게되여서 그將來가 몹시 憂慮되던 터인데 지난十月初부터 館主朴晶鉉氏自身이 이것을 積極的으로 整理하는 한편 잇때까지 事實上의 支配를하고 잇던李龜永 朴應冕兩氏外五六人의 社員을 全部日間에 退社시키는等社員의 大整理가 잇서서 今十五日로 全部淸算해버리게되엿다.

이러케 團成社에對한 變動은 前부터 同社의 顧問으로잇든某氏가 社에나와서 일을보고 잇스므로 一部에서는 某氏의 背後에 큰財閥이 잇서서 朴氏와 共同經營을하는것이 아닌가하고 注目하고잇다

一方同社에서는 館主의令息朴明俊君을 支配人으로 就任시키고 一切의部署를 整頓하야 積極的으로 이때까지의 失敗를 回復시키려고 그對策의 樹立에 苦心하는 모양이나 지금과가튼 市內 興行狀態로보아 압흐로의 營業方針을 엇더케 세울가가 注目되는바인데 이에對한 館主 朴晶鉉氏는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不得已한整理

朴晶鉉氏談

外部에서는 金永浩氏의資本이 드러온듯이말하나 그러치 안습니다. 벌서부터 큰整理를하랴고하긴햇스나 그가운데는 二十年동안 同苦한사람도잇스므로 그럭저럭눌러보고왓습니다 그러나 이모양으로나가다가는 今年을無事히넘길것갓지 안케 經營困難함으로 하는수업시 整理를하고 그애(明俊)에게 一切를맛기기로햇습니다

云云

라듸오

十五日(金曜)

◇午後六時 맨돌린과童謠 一、行進曲『進軍』사르도리作曲 二、童謠(가)햇살젓는돌바아(나)단풍닙 三、맨돌린二重奏 가)라-伴奏(가)마주르카 파르티作曲(나)希臘의춤 두-니스作曲 四、童謠(가)맘프기(나)새때 五、軍歌集 드립소사이에티-編曲 六、童謠 달아달아 京城플렉트럼소사이에티- 童謠獨唱 秦貞姬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講演『保定陷落의光景』每申編輯局長 柳光烈

◇同七時四〇 致家實談『錦囊十訣』 車相瓚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日本海軍』 明新合唱團 指揮 玄濟明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박타령 鼓手 丁元燮 韓錦玉

◇同九時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講演(第三日)『非常時經濟에對하야』 朝鮮日報 徐椿 譯講(不生歐三郎)

第一放送

◇同六時 (東)管絃樂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同

◇同八時 (東)唱歌

十六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東)室內樂 一、小組曲(展覽會그림中에서) 1、步廊 2、古城 3、리모-쥬市場 무소르그스키-作曲 二、안단테 듸부러-스드르프作曲 실반스드리컬렛드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가을철에만흔어린이病』 府民病院小兒科長 李

繼續 레코-드音樂

◇同六時 라듸오學藝會 一、幼年童話『해님과바람』 二、童謠獨唱 1、마을 2、햇빗은쨍쨍 3、아저씨모자 4、애기별 5、애기각씨 三、幼年劇『오뚜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朴仁德

◇同七時四〇分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講演(第四日)『銃後의守護日』 京城女高 孫貞圭

◇同八時 譯講(本野久子)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日本海軍』 明新合唱團 指揮 玄濟明

◇同八時二五分 經濟라듸오小說(當選作品)『銃後의握手』—延銀龍作 配役

◇同九時〇五分 一、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羽調二 四、還界樂 五、編

◇同九時三〇分 皇國臣民誓詞

十七日(日曜)

◇午前七時二〇分(東) 라듸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午後〇時〇五分 第十三回朝鮮神宮奉讚體育大會野球試合實況(國語)中等學校 一般決勝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但뉴-스時間中은中斷)

◇同六時 어린이音樂會 一、빠이올린獨奏 生徒用協奏曲第二

◇同六時一五分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講演(第五日)『神社參拜와國勇士讀頌日』 總督府社會教育課長 金大羽

◇同六時五〇分 譯講『神社參拜精神』(寬克彦)

◇同七時三五分 短簫獨奏『淸聲자진한닙』 李炳祐

◇同七時四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 科擧보는데 玄石年 鼓手 韓成俊

◇同八時五分 譚話『秋聲賦』外二篇 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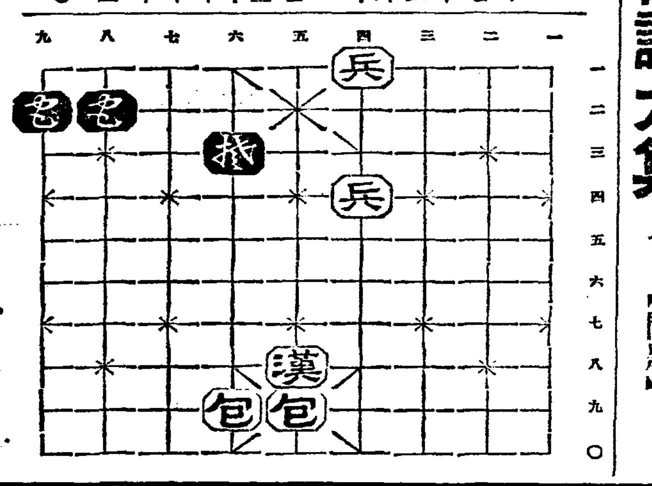
◇同八時二〇分 舞臺劇—府民館으로부터中繼—靑春回想曲(原名알트·하이델베르히) 全五幕中 第二幕

◇同九時三〇分 皇國臣民誓詞

◇博譜大集 11 【問題】

◀漢이이기는수▶

漢이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게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보십시오 (博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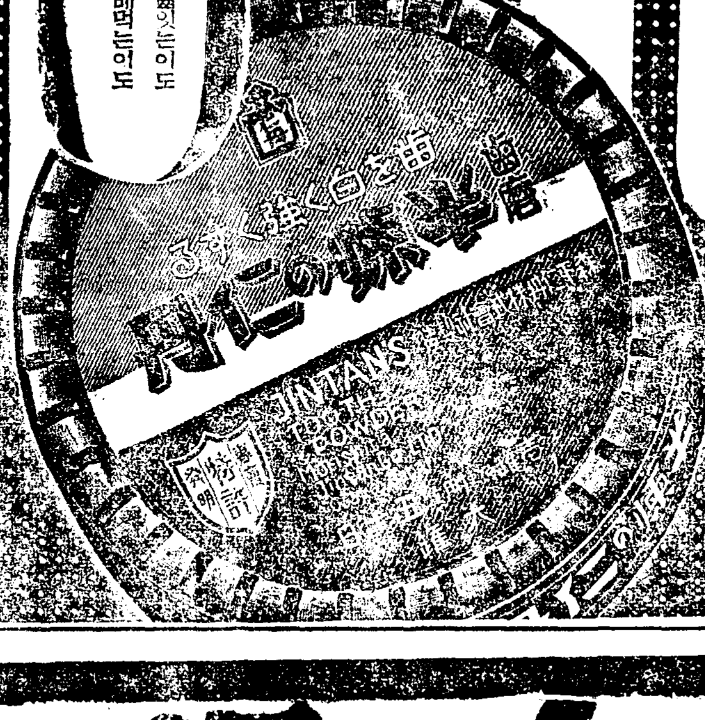
洗髮料 花王シャンプー 샴푸

맑고·몸조코 그리고 艶麗해! 毛髮을 貴重히 하시는이면 洗髮料는— 반드시 花王샴푸-입니다

日本髮이면 一回分
洋髮少女시면 二回分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仁丹 半煉 齒磨



齒를害치잔는半煉界의最高品

虫齒잇는이도 담배먹는이도

昭和의常識

就職近道 第二回 大滿測量學院 附設營業部

朝光 十一月號 不日出來

조흔物件에눈이쏠린다!

金鶴ポマード 포마-드

本舖 株式會社 津村順天堂

濕布에 エキホス

EXIHOS

エキホス를塗布하면、局所의血液循環을 佳良케하고、充血、疼痛을輕減하며、腫脹을업새고、滲出液을吸收함。

濕布와가티手苦가업고 一回의塗布로長時間効力을持續함

感冒、肺炎、氣管支炎

咽喉가다루、肋(腹)膜炎、扁桃腺炎、神經痛、류마치스、腰痛、火傷、齒痛、百日咳、其他모든炎症性、疼痛性疾患에써서濕布보다훨신優秀한消炎鎭痛의効果를엇는다

結核性肋膜炎、腹膜炎、淋巴腺腫(瘰癧)等에는 エキホス姊妹品인 グアヤコール エキホス의使用에依하야効果一層顯著함

包裝定價
一〇〇瓦 ·五五
二五〇瓦 一·一〇
五〇〇瓦 一·九〇
二 瓩 六·〇〇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信用잇는藥店에는반다시『エキホス』의備品잇다

エキホス 에끼호스

A—63

本社京阪 電(2)本一五九七番

松竹キネマ 10月9日ヨリの番組時間表
京日·讀賣ニュース 11·30 3·00 7·00
次郎吉明ざんげ 11·46 3·16 7·16
號外ニュース 1·14 4·44 8·44
ホノルルの航空隊 1·30 5·00 9·00
明治座

優美館 電光三九五 寶鐵町
北支事變뉴-스 漫畫 全卷上映
宮本武藏

中央館 本三二〇四 水樂町
海の魂
十月十四日부터超特別大封切 파라마운트社本年度超大作

日支事變ニュース 召集令 忠臣藏

中部版

上仁川道路鋪裝 十月中에는完成

【仁川】 부평면 마이의 상대도시통정을 매일부정착공하고잇스나 인천화평리(花平里)인 상인천(上仁川)역전 도로는 아즉것 『메담』을 하지아니하야 비오는때이면 통행인에게만 불편을 느끼게 할뿐아니라 도시계획상으로도 조치안흔관계를 보처주고잇슴으로 인천부에서는 이번에 그도로를 포장하야 준공되야 무역이 편리하게 되리라한다

解弛해진交通道德 復興鼓吹에注力
京畿道警察部에서陣容整頓
市內六警察署總動員

지난칠월 일지사변 발발이래 그동안 경성시내에는 방호단조직, 방공연습이니 등화관제이며 여러가지 총후의활약에 경성시내의 각경찰서에서 분망한총후 하야 그간 자연 손이모자라서 교통안전과 교통안전『데ー』를 실행할수업던 형편이엇는데 이에따라 일반시민들도 교통도덕의 관심이 주러드러가 교통도덕이 저옥히 해이하여지고 특히 등화관제로 말미아마 그인식이 철저치못한탓으로 또는그 등화관제의 통행금지 의식적으로 교통규측을 위반하는자도속출하야 그폐단이 하나둘이 아니엇상태에 이르럿다 이에착안한 경기도경찰부보안과에서는 이번 경우 그교통안전의 진영을다시 수습해가지고 시월부터다시금교통안전『데ー』와 교통안전주간을복흥식히게되여 십일일에는경기도보안과에 시내여섯경찰서보안주임회의를 개최하고 그구체적협의를마첫다 이리하야 매월 제삼토요일의 교통안전『데ー』를 십륙일부터 실시하게되여이날오전여덟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에 시내경관약칠백명과 강습소교습생원대 일백오십명가량이충동원되여 호령에 착수하게되엿다 이에따라 금후매주일수요일마다 하던 교통안전주간도복흥하게되여 시내의교통이 철저히 정연하여지게되엿다

沿岸貿易은激增
對支貿易激減의反響
仁川港九月中二億圓을突破

【仁川】 인천항의 무역액이 이억원에 달하얏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금번은 의외에 지나사변이발발하야 대지(對支)무역이 두절되여잇는만큼 대외무역은 격감되고잇스나 그반면에대내무역은 격증하고잇서 구월중의 것만으로도 전년동기에비하야 개수로만도삼사오만건이 증가하야 그야말로 서해안의 요항인것을 명하야주고 잇다는바 자세한 수짜는다음과갓다한다

出荷 前年 二八、八一一件 今年 六八、九九三件
入荷 前年 七、八六三件 今年 一一七、四一九件

大野總監水原視察

【水原】 대야정무총감은 지난십사일지방순시차로 광주 룡인양군을 거처서 정각보다 삼십분늣게 오후세시이십분경에 수원 군청에 도착하야 관민유지를다수 접견하고즉시출발하야귀성하엿다

伊川郡方丈面에도 第二普校設立運動
벌서千餘圓을積立

【伊川】 강원도 이천군 방장면(方丈面)에서는 일면이교제로 초등교육확충에 대하야 이천군내 십일면중 제일먼저 일면이교로 방장면내에서 금후 제일발전성을 띄우고잇는 갈산온천(葛山溫泉)이부 구당리(舊塘里)에다가 제이공보교를 설치코자 오는십칠일오전열시부터 가려주공보교 강당에서 방장면민대회를 개최하고 방장면내 가려주공보교의 설치에 대한것을 토의코자한다는데 방장면민의 의사를 드른바에 의하면 만장일치로 구당리 제이공보교와 가려공보교의 학급증설을 위하야는 무엇보다도 금년가티 농촌에서 풍작으로일반 경기가조흔때에 면민들이 하지안흐면 안된다는열성으로 나간다는바 이천군에서는 방장면이 제일먼저 일면이교가 될것으로 구당리민들은 벌서 보교설립자금으로 일천원을 적립하고 가교사의 준비도완성되엿슴으로 금후이천원만 조달된다면 문제업시 명년도사월부터 제이공보교의개교를볼것으로 자녀교육을위하야는 조곰도 사양치안코 전진한다는데 십칠일 면민대회에서는 모든것이 순조로히 만장가결을 볼것으로 방장면내초등교육계를위하야 실로경하할만한것이라고한다

(사진은 藥草園廳舍敷地와 地鎭祭式典光景)

上仁川驛의 乘降客激減
九月에萬名減少

【仁川】 지나사변이 돌발하자열차운전이 축소되야 화물운송에 가장만흔 지장을이르키게되야축항구내에 적체된 화물만도 일만오천여톤에 달한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외한가지 승강객도 작년동기에비하야 일만삼천여명의 감소를보여주고 잇다는바 자세한통계는 다음과갓다한다

九月中上仁川驛乘降客
乘客 前年 四七、五二四名 今年 四九、〇六九名 一、五四五
降客 前年 七〇、二〇五名 今年 五六、三三五名 一三、八七〇名減

江華地方初霜

【江華】 강화지방에는 지난십일밤에 금년드러서는 처음으로 서리가 나리엿다는바 작년에비해서는 여드레가늣고 례년에 비해서는 삼일간이나 일즉이나리엇다고 한다

債券詐欺事件에 仁川被害者四十餘名

【仁川】 하관시(下關市)에 본거를둔 중앙상사사(中央商事社)라는 명의로 업는채권을 가지고 허위매매를하야 백만원이나 사기하엿고 피해자가 일천사오백명에 달하야 방금경기도 경찰부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함은 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피해자가 인천에서도 발견되야 증인으로 소환심문중이라는데 십사일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만도사십여명에 달한다는바 사건에따라서 얼마나만흔 피해자가 발견될지 가장주목된다한다

東蘇島里에서 白晝、草家半燒

【仁川】 화재기절을발하야 아해들의불작란을 단속하시요ー 십사일오후시경 부외동새성 사십구번지 정여진(鄭麗鎭)의집에서 불이나서 초가다섯칸을반소하고 동리사람들의 협력으로 동세시경에 겨우껏다 손해는 오십원정도요 원인은 그집에세 아들정수(長秀)가 부억밧게싸아노흔 마초에다 성냥을켜대인것이 연소된것이라한다

支那事變影響은 漢方藥材에도
附子、紅花는倍나暴騰

【開城】 이번 시국관계로 한약(漢藥)방면에 미치는 영향은어떠한가하고 경기도 약용식물연구소(京畿道藥用植物硏究所)당국자담을 들어보니까 당재(唐材)는 이백여종중 일배 혹은이배로 폭등한것이 약자신종가량된다하며 그중 부자(附子)가튼것은 보통배근에 칠십원내외하든것이 이백오십원으로ー홍화(紅花)는 사십오원 정도의 것이현재 일백오십원내외의 고가로폭등햇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자드리기가 곤난한 형편이라한다 그런중 금번 동소에서는 조선내각도에 유상배부(有償配付)건수와 공동구입(共同購入) 건수를 합해서보면 실로 일천여건이나 된다하므로 그리의도 상당할 모양이라한다

豚公이大繁昌
仁川家畜市場에서

【仁川】 수년전부터 서산(瑞山) 또는 강화(江華) 김포(金浦)등지로부터 돼도하는 도야지(豚)를 하야 항상 연안부두에 도야지(豚公)의 장립을보게되는바 지난이월이래부터 이를 전문으로하는 가축시장(家畜市場)을 송판정(松坂町)에두고 이를 전문매매케하엿는바 개업후월동안 취급두수(取扱頭數)가 삼천삼백두에 수수료만도 이천륙백여원에 달하야 일년수입예산이 천삼백여원을 발서 초과하고잇서 적어도 금년내에는 일만두를 초과하리라한다

七十錢勞賃에 犧牲된勞働者

【仁川】 칠십전이라는 돈에목

京城外國語學院 秋季運動會開催

시내수은정(授恩町)에잇는 경성외국어학원(京城外國語學院)에서는 십륙일오전아홉시부터 신설리 경마장(競馬場)에서 추기운동회를 개최하기로하엿다

美貌의人妻를誘引 轉賣한一黨捕盡
延吉에서平康에押來

【平康】 부랑자도아니며 상당한 직업을가진 세가정부가 총동원하야 잔인스럽게 남의가정부인을 꾀여다가 음식점에 작부로 팔아먹고 그후에 또 인육시장에매음녀로 팔아먹으려든중에 경찰에 탐지되여 체포된사건이잇다 원산신흥동(元山新興洞)에서상업을하고잇는 박병진(朴炳鎭)과 그의안해되는 최용대(崔龍大)는 소화십일년음오월에 평강읍내서변리(平康邑內西邊里)에사는 강기남(姜奇男)의 처 한인순(韓仁順)의 미모를 리용하야 그를꾀여다가 함흥부황금정이정목(咸興府黃金町二丁目)에사는 리응삼(李應三)에게 일금구십원에 팔아먹엇는데 리응삼은 동녀를 함주군산평면이흥리(咸州郡山平面二興里)에사는 김덕인(金德仁)에게 다시 팔고 그후에 간도연길가상시(間島延吉街上市)에서 일락거(一樂居)를 경영하고잇는 정이진(鄭二鎭)의안해 리진옥(李珍玉)과 연락을취하고 전기한인순을 다시유인하야 리진옥의집에 매음녀로 팔기로계약이되야 식정을하고잇는 봉산옥(鳳山屋)으로 다리고가서 그곳에서 일금일백이십원에 매도케 되엿던바 이것을 탐지하고 평강경찰서에서는 리형사가 지난달에 간도에 출장하야 그동안 맹렬히 수사한결과 범인전부를 체포압송하야 왓다는데 범죄사실의 취조도일단락을짓고 서류와함께불원간검사국에 송치되리라 한다

本社水原支局主催로 軍人家族慰安音樂會
天才提琴家白高山、弟出演
十八、九兩夜 水原劇場에서

【水原】 바이오린의 천재 백고산(白高山)과 백해제(白海帝)의어린형제는 벌서 그재조를 널리알리여 젓거니와 이번 수원에서 어린 제금가(提琴家)를 마지하야 금번지나사변에 출정한 군인의가족 위문음악대회를 오는십팔 십구량일밤 수원극장에서 열게되엿다 이백고산군의 형제는 일즉이 라디오와 신문지상을 통하야 만히듯고보고 하엿슬것으로 더소개할것이 업스나여기에 그대략을 소개하면백고산군의형 백해제(白海帝)군은 금년에 십이세되는 소년제금가인데 칠세때에 동경으로 가서 석정막씨후원하에 제국음악학교에 입학하야 모기레스키ー씨의 문하에서 연구를하여가지고 작추 동경일비곡공회당에서 제일회공연을한바 일본악단에 큰센세이슌을 일으킨것은 더말할것이업스며 백해제군의 아우고산군은 금년만륙세인 천재음악가라고도하고 신동이라고도 일르는 제금가이니 그얼마나 귀여운음악일지 모를것이다 본사수원지국에서는 일즉부터 전기량군을 일반수원인사에게 소개코자 하엿스나 기회를엇지 못하엿다가 이번에 경성서 중앙공연을 하러가는 기회를리용하야 경성보다 먼저 일반수원인사에게 소개코자하는것이니 일반인사는 이기회를놋치지말고 이어린형제의 예술을 들어주기를 바란다한다

京畿號基金으로 千五百餘圓을또獻金
繼續하는江華郡民의熱誠

【江華】 강화군민의 헌금액이 일만삼천여원을 초과하엿다함은 기보한사실이어니와 또다시 경기도호비행기헌납용통에기금을 모으고 잇섯는바 과연 그금액이 일천오백여원을 초과한바 도의원 김근호(金根鎬)씨와 동군수박제승(朴齊昇)씨의 로력이 크다고하며 헌금한씨명은 다음과 갓다

洪斗燮三百圓 洪在默三百圓 金化春二百圓 金宇中百圓 洪在燮百圓 張元錫百圓 金裕榮百圓 佛恩金鑛事務所人夫一同百圓 仙源金鑛事務所百圓 六十圓

仁川仁和券番의 帳簿를押收檢查
十一日、仁川署에서

【仁川】 인천인화(仁和)권번은 인항(仁港)권번이든것이 약이년전에 그조직체를 합자회사로 개혁하야 이래 경영하야오든바 지난 십일일 인천경찰서로부터 동권번의 장부일체를 압수하고 서기급 조합장과 각관계자를소환하야 방금 극비밀리에 취조를 계속중이라는바 탐문한바에 의하면 권번의 순리익금중에과대한 교제비를 내이엇슬뿐아니라 그외에도 적지안흔 랑비가 과다한 혐의라는바 취조에따라서는 모방면에까지 파급될것이며 따라서 륙십여명기생을 상대로 큰문제이라 그 진전이가장 주목된다 한다

藥都開城에또朗報
京畿道立藥用植物研究所여페
城大藥草園廳舍新築

【開城】 현재 개성부외 령남면룡흥리(嶺南面龍興里)에잇는 경기도립 약용식물연구소(京畿道立藥用植物硏究所)는 약사만여평의 기지에 무려 천여종의 약초(藥草)를 재배하야 조흔성적을 보히고잇는중 또 동연구소와 린접한 부지에 경성제대약초원청사(帝大藥草園廳舍)가건설케되여 명실공히 개성은 금후 동양제일의 약도(藥都)로명성을 떨치게되엿다 그런데 전기약초원건설공작의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총공비만 오만사천원예산으로 방금 석전조(石田組)에 청부되여 기공중인데 건물 평수가 근삼백평으로 이곳에고려조의 고전적 색채를 그대로 본뜬 조선식 이층집 웅장한면모를 나타낼것인바 이공사는 래년칠월경에나 완료 되리라 한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준공된후에도 작업기계『표본실』등 완전한 설비를 가추기까지는약 구만여원의 방대한 경비를 요하리라는데 그중 삼만원은 개성부민의 보조한것이라한다 그리고 지난십사일은 경성제대삼원박사(杉原博士)의 래방을 비롯하야개성각계유지가 다수히참집한가운대 지진제(地鎭祭)의식전을성대히거행하얏다

百餘圓獻納
날품파는白蔘職工
開城勞働層最初

【開城】 개성삼업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경영인 백삼제조장(白蔘製造場)에서 날품파리 로동을하고잇는 전여명 남녀직공은 지난십삼일 개성부당국에일백삼십구원 오십전을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얏다는데 로동계급의 총후적성은 개성서이번이 처음으로 당국은감격하야마지안엇다한다

二長篇小說二 花冠 【74】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알도록불행한것(三)

채봉은 일현의 수량을 따를수는 업다。맥주면 두고뽀、정종이면 다섯잔을 넘지 안하서 빨개지는 채봉이다。그러나 단둘이 안즌 자리에서 손님의기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로는 따러 마시는 시늉을 아니할수가업다。상미레 빈그릇하나 보는 흉물이 술을 따리버리고 비찬만 마시는체도 하엿지만 번번히 그러케 피할수는 업는것이다。일현이가 두잔을 마시는데 한잔 흥은 석잔을마시는데 한잔식 마신것만해도 자정이넘어서는 채봉이도 맑은 정신을 지탱하는수가 업다。될수잇는대로 취하지 안흐려 감만 한쩐 시를 따로가저오래서 작고빼겨먹엇스나 결국은 일현이가 둘로도 보히고 셋으로도 보히엿다。

『나보게! 주서는대로 먹네여쩔러구……』

『음…이년? 뭐 채 채봉? 너나구살련?』

하고 꼬브라진 일현의 수정이 나오면 채봉이도 솟아나려던 맑은 정신이 다시 탐방 가라안는듯 아찔해지고 마는것이다。

『나허구 호호……맘대루해보시구려……좀 조와……』

『맘대루 해봐라? 요……요걸……곱ー세다 놀아야……』

하고 노래가락이 나오기도 한다。그러면 채봉이도 억개를한번 웃속 속가 가지고

『유ー가도 남기려만은 한가ー지에 돌식ー셋ー식…』

하고 박기도한다。

『더 우리 동…동욱이 모르지』

『동욱이?』

『그래?』

『어ㄴ 권번인데?』

『예ー이년 기생이술 아니?』

『왜 남을 욕해? 내 막…』

하고 채봉은 달려들어 일현의 무르팍을 깨문다。

『아야!요 요런…』

일현은 그만 채봉의 등어리를 끄러안어본다。취한 코에도 채봉의 목덜미의 분내、살내ー그리고 취한 손과 팔에도 채봉이의 등어리와 겨드랑의 감촉、일현은 취기가 선듯 물러가는 대신、술기운보다 몇갑절 더뜨거운것이 화 전신에 내닷는것을 느낀다。

『흥……』

『흥……』

『요것이 남 하는대루……』

채봉은 깨물려던 일현의 무릅에 한편뺨을 누이고 말똥히 처다보는것이다。채봉이도 다른 정신이 나는듯하다。

『왜 보니?』

일현은 갑자기 서먹해저서이런 말이 나왓다。

『좀 보문 어떤가요뭐……』

하고 얼굴을 팔는 채봉이도 그『어떤가요뭐……』하는 소리가 직업을 떠나 한 이성을느껴보는듯 갑자기 수집어지는말투다。

『맷살이냐?』

『……』

채봉은 고개를 돌지안는다。

잠잠한 시간이 한참지나갓다。

『벙거지……』

『응? 채봉?』

하고 그제야 얼굴을 돌더니채봉은 두손바닥으로 두뺨을 가리고만다。

『갓수물……』

일현은 시계를 꺼내여 본다。새로 한시가 지낫다。더욱새정신이난다。채봉은 약간 일현과 오면해 안더니 담배를 한대 집어오는것이다。

『내 부처드리지』

하고 일현이가 성냥을 그어내여민다。담배를 문 빨ー간채봉의입술은 물론 보지도 안코、그입술까지가 야무지게 일현을 처다본다。일현도 성냥가피가 다 타저드러오는것도 모르고 채봉의 아미만 나려다본다。

『앗 뜨거!』

일현은 다 타산 성냥가피를 내여던지고 다시 새것을 그어 부처준다。그리고 자기도 한대 피여문다。서로잡히 담배연기만 뿜는다。동을시 이내설은듯설은듯해진다。일현은 사시를헤어 신설로 국물을 휘저어보앗스나다 식어갑도 나지안는다。

『춥구나』

『추어 참!』

하고 채봉은 웅숭그린다。일현은 손벽을친다 이내 뽀이가미다지를 연다。

일현과 채봉은 새정신으로서로 의논해서 국밥을 식혓다。

국밥을 먹고는 곳 셈을 치르고 방을 나섯다。텅ー비인 복도에는 찬바람이 칭 지나간다。일현은 아직 스팀을 피이지안흔 아파트의 침상이 얼마나쓸쓸스러울것을 생각한다。

『채봉아?』

『네?』

뽀이가 어서저만치 압서가기를 기다리는듯 일현은 턱밋을 쓸면서 기름진국을 먹어 반지르르 윤이 나는 채봉의 입술을 나려다보다。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淋疾
排菌早期療法
ゴノラミン
阿部藥房 電本局(2)四四八七番 振替京城二七六六番
製藥元 大阪 ゴノラミン製藥所

秋より冬への流行服裝

京城府本町一丁目四九 京城運動具商會 電話本局(2)二〇一四番

要不手術 廣告
梅毒藥
一劑金四円
釜山府草梁町 田春藥院
振替釜山五二〇三番

朝鮮唯一의週刊地方新聞紙
中央時報
支局募集
支局規約要切手四錢
京城府林町八二 株式會社 中央時報社

朝報案內

看護員見習採用
大京齒科醫院

掛時計日賦販賣
京城本町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

女事務員
京城本町四ノ二 井商店

社員招聘
日華生命平壤出張所 所長 全基弘

美와魅力의標準愛國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ー랑

緊張한時局에健康한愛国化粧!
經濟는銃後의義務
時局은經濟와健康을부르고 銃後의 義務가完全하기를 바라고잇습니다 이러한때 豊富하야 잔손이걸리는舊式化粧은 滋味업는줄압니다
化粧하시는 時間을어새고 消費經濟의 合理化를圖謀하야 適應한化粧料를擇하시는것은 銃後의近代女性으로서 優雅한일이며義務인줄압니다
愛國標準化粧料
크림과、白粉과化粧水와의 三肌美素를單、一品에配合하는대成功한科學의タンゴドーラン은 從來品의 세번手苦를한번으로 주리고 바등과퍼집이조흔은 終日化粧이일리지안케합니다 이比類업는効果! 헤푸시안한經濟야말로時局의愛國化粧料라고할만합니다
健康한自然美化粧
榮養의 タンゴドーラン은 適確히살결을길르고 侵透力은 皮膚의新陳代謝를旺盛케해서乾燥한 秋風에도일로부터의寒風에도 適當한濕潤을保合하야 絶對로살결을거칠지안케하고 스스로健康해지게합니다
新鮮優美한 色調는 활신더당신의自然美를더하야 國防의街頭에家庭에긔븜을드리겟지요

얼굴의色에따라 一層더어여쁘게되는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빗이힌 분은……白色
빗이프 른분은……淡紅色
지안혼 분은……早曉色
붉이한 분은……爽健色
白이붉은 분은……新鮮色
尖端的인美容에는……明朗色
定價各色一個五五錢
全國百貨店、化粧品店、藥品店에잇습
大阪・東京 中山太陽堂 會商助之達野平

一家一册! "少年"十一月號今日發賣!
어린이는집에"少年"은잇습니다! 그림과애기의화수분! 한권에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臨時資金調整法今日實施

十萬圓以上의 貸出 實際上皆無形便

適用의 影響如何重視

臨時資金調整法은 十五日朝鮮에서도 施行되엿는데 調整法의 實施에 依하야 各金融機關에 特別한 影響이 잇슬것으로는 보이지안는다 即實際問題로 事業資金의 貸出을 行하는곳은 鮮銀、殖銀、東拓等이오 其他金融機關의 貸出도 自治調整에 依하야 三萬圓以下는 自由요 三萬圓以上十萬圓以下의 貸出도 總督府의 方針 又는 調整法의 基準에 從하야 自治的으로 貸出할수가잇다 十萬圓以上의 事業資金 貸出은 實際上 皆無의 實情이오 又事業의 施設擴張 新設等 境遇의 資金調達에 對하야는 事業自體의 認可를 어더야되는 일이만어 이따위는 다시 調整法에 依한 審議를 受치아니 할지라도 無妨하게되엿슴으로 實際調整法의 適用에 依한 影響은 아주 눈에 띄이는것이 업다

許可認可事務 總督府直接取扱

委員會規定은업다

◇…林財務局長談

臨時資金調整法의 目的은 同法第一條에 明示한바와가티 이번의 支那事變勃發에 伴하야 物資及資金의 需給適合에 資하기爲하야 事業資金의 使用을 調整하려는것으로 卽此際資材及資金의 使用에 對하야서는 國家全般의 目的의 遂行의 見地에서 無用한것을 省略하고 最高의 能率을 發揮시키도록 新規의 事業設備를 爲하야하는 固定投資에 適當한 調整을 加하야 資材及資金을 國防其他時局에 緊要한 方面에 潤澤히 供給할수잇는 길을 여메잇다

그러나 本法이 企圖하는바는 今後의 新固定的事業投資 即事業設備資金의 調整으로 一般流動的運轉資金을 取締치안흠은 勿論 旣存의 國內產業을 萎靡시키지 안흠을 趣意이므로 此點을 特히 諒解하여주기를 바란다 本法은 去 第七十二議會를 通過하야 內地에서는 이미 九月二十七日부터 實施되엿스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朝鮮의 施行은 늣게되고잇든바 勅令인 臨時資金調整法施行令과 共히 十月十五日부터 朝鮮에도 施行되게되어 이에 伴하야 同日附로써 府令「臨時資金調整法施行規則」이 發布되엇다 勿論 本法을 朝鮮에 施行함에 當하야 同法第五條乃至第七條 第十一條乃至第十五條의 規定은 除外되엇다 即 本法中 興業債券發行限度擴張에 關한 規定 金資金의 運用範圍擴張에 關한 規定 貯蓄債券의 發行에 關한 規定은 朝鮮에 直接關係가 업스므로 이를 除外하고 또 本法에 基한 許可又는 認可에 關한 事務는 內地에서는 日本銀行으로하야금 取扱케하고잇스나 朝鮮에서는 直接本府에서 取扱하기로하고 또 臨時資金調整委員會及 臨時資金審査委員會의 規定도 朝鮮에 施行치안코 모다 朝鮮總督이 이를 行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本法의 金融機關의 範圍도 朝鮮에잇서서는 銀行、信託會社、保險會社、東洋拓殖株式會社及朝鮮金融組合聯合會로하얏다

本法은 압서도 說明한바와가티 이번의 支那事變에 伴하야 緊急公布되고 事變終了後 一年內에는 廢止되는 臨時的立法으로 現在의 重大時局에 鑑하야 國民一般은 잘 本法의 趣旨를 體하야 物資資金의 統制實現에 協力하기를 切實히 希望하는바이다

資金自治調整團事務所(銀行集會所)

臨時資金調整法

第一條 本法은 支那事變에 關聯하야 物資 及 資金의 需給의 適合에 資키 爲하야 國內資金의 使用을 調整함을 目的으로함

第二條 銀行、信託會社、保險會社、產業組合中央金庫、商工組合中央金庫及北海道拓殖銀行과 北海道를 區域으로하는 信用組合聯合會(以下金融機關이라 總稱함)은 事業에 關하는 設備의 新設、擴張 或은 改良에 關한 資金의 貸付를하고 又는 有價證券의 應募、引受 或은 募集의 取扱을 하려는때는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政府의 許可를 受할것 金融機關이아닌 者로서 有價證券의 引受 又는 募集의 取扱을 業으로하는者(以下 이를 證券引受業者라 稱함) 有價證券의 應募、引受 又는 募集의 取扱을 하려는때 亦同함

第三條 金融機關 又는 證券引受業者 前條의 貸付 又는 有價證券의 應募、引受 或은 募集의 取扱에 關하야 本法의 目的에 從하야 政府의 適當타고 認하는 方法에 依하야 自治的으로 調整을하는것인때는 이에 對하야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前條의 規定을 適用치 안흠을 得함

第四條 命令의 定하는 會社의 設立은 政府의 認可를 受치 안흐면 其效力을 生치안흠 會社의 資本增加、合併 又는 目的의 變更으로서 命令의 定하는 것에 對하야 亦同함

命令의 定하는 會社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 잇어서는 政府의 許可를 受할것

一、第二回以後의 株金의 拂込을 시키려할때

二、株金의 拂込、社債의 募集 又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에 依치안코 命令의 定하는 事業 設備의 新設、擴張 又는 改良을 하려는때

三、他人으로하야끔 引受 又는 募集의 取扱을 시키지 안코 社債를 募集하려는때

第五條 政府는 第二條 又는 前條의 許可에 關한 事務를 日本銀行으로하여금 取扱시킴

前項의 事務의 取扱에 要하는 經費는 日本銀行의 負擔으로함

第一項의 境遇에 잇어서 當該事務에 從事하는 日本銀行職員은 이를 法令에 依하야 公務에 從事하는 職員으로 看做함

第六條 日本興業銀行은 五億圓을 限하야 日本興業銀行法第十二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을 超過하야 債券을 發行함을 得함

日本興業銀行은 其債券借換을 爲하야 債券을 發行하는 境遇에 잇어서는 前項의 制限에 依치안흠을 得함

日本興業銀行法第十六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치 안흠

政府는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야 發行하는 債券에 對하야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額面金五億圓을 限하야 其元本의 償還及利息의 支拂을 保證함을 得함

第七條 金資金은 金資金特別會計法 第四條의 規定에 依하는外 이를 興業債券에 運用함을 得함

第八條 命令의 定하는 時局에 緊要한 事業을 營爲하는 會社는 事業의 擴張에 잇어서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政府의 認可를 受하고 其事業에 關하는 設備의 費用에 充키 爲하야 株金全額 拂込前일지라도 其資本을 增加함을 得함

第九條 命令의 定하는 時局에 緊要한 事業을 營하는 會社는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政府의 認可를 受하고 其事業에 關하는 設備의 費用에 充키 爲하야 商法第二百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을 超過하야 社債를 募集함을 得함 但 社債의 總額은 拂込한 株金額의 二倍를 超過함을 不得함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依하야 會社에 現存하는 財産이 拂込한 株金額에 未滿하는때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안흠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야 募集하는 社債에 對하야서는 擔保附社債信託法에 依한 物上擔保를 附함을 要함

第十條 政府는 第八條의 規定에 依하야 資本을 增加한 會社 又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社債를 募集한 會社에 對하야 監督上 必要한 命令을 發하고 又는 處分을 할수잇음

第十一條 資金使用의 調整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調査審議케하기 爲하야 臨時資金調整委員會를 置함

臨時資金調整委員會에 關한 規程은 勅令으로써 이를 定함

第十二條 第二條、第四條、第八條 又는 第九條第一項의 規程에 依한 許可 又는 認可에 關한 處分으로 事案의 重要한것에 對하야서는 臨時資金審査委員會의 議를 經할것

臨時資金審査委員會에 關한 規程은 勅令으로써 이를 定함

第十三條 政府는 日本勸業銀行으로 하여금 收入金一億圓에 達하기까지 貯蓄債券을 發行시킬수잇음

貯蓄債券은 無記名으로하고 發行의 翌年부터 三十五年內에 每年二回以上 抽籤으로써 이를 償還할것

第十四條 貯蓄債券의 發行價格은 二十圓以下로함

貯蓄債券의 償還에 際하야는 償還金에 附加하야 割增金을 交付함을 得함

前項의 割增金은 主務大臣이 定하는 價格에 依하야 償還金의 百五十倍以內의 額으로하고 其方法及金額은 主務大臣이 이를 定함

第十五條 復興貯蓄債券法第三條及第五條、第六條、第七條第一項及第八條와 日本勸業銀行法第三十五條의二、第三十五條의三、第四十條及第四十二條의 規定은 貯蓄債券에 이를 準用함

第十六條 政府는 資金의 狀況을 調査키 爲하야 必要잇다고 認하는때는 命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左의 各號에 揭하는 事項에 關하야 關係者로부터 報告를 徵하고 又는 帳簿書類其他의 物件을 檢査함을 得함

一、資金의 需給 及 移動에 關한 事項

二、有價證券에 關한 事項

三、國際收支에 關한 事項

四、事業의 資金計劃에 關한 事項

第十七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一、第二條의 規定에 違反하야 許可를 受치안코 資金의 貸付를 하고 又는 有價證券의 應募、引受 或은 募集의 取扱을 한者

二、第四條第二項의 規定에 違反하야 株金의 拂込의 催告、設備의 新設、擴張 或은 改良 又는 社債의 募集을 한者

第十八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一、第十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 又는 處分에 違反한者

二、第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안코 虛僞의 報告를 하고 又는 檢査를 拒하고 妨害하고 或은 忌避한者

第十九條 法人의 代表者 又는 法人 或은 人의 代理人、使用人其他의 從業者가 其法人 又는 人의 業務에 關하야 前二條의 違反行爲를 한때는 行爲者를 罰하는外 其法人 又는 人에 對하야도 亦 前二條의 罰金刑을 科함

第二十條 當該官吏、委員 或은 第五條第三項에 規定하는 日本銀行職員 又는 其職에 在한者 本法에 依한 職務執行에 關하야 知得한 法人 又는 人의 業務上의 秘密을 漏泄하고 又는 竊用한때는 一年以下의 懲役 又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二十一條 本法을 朝鮮、臺灣、樺太에 施行하는 境遇에 잇어서 必要잇는때는 勅令으로써 特別한 規定을 設함을 得함

附則

本法施行의 期日은 各條에 對하야 勅令으로써 이를 定함

本法은 第十四條及第十五條를 除하고 支那事變終了後 一年內에 이를 廢止하는것으로함

自治調整團 幹事四社로決定

資金調整法에依한 資金自治調整團은 十五日 同法의實施와共히 組織하얏는데 幹事는 鮮銀、殖銀、一銀、東拓의 四社로 決定하얏다

鮮銀支店課에 資金調整係

鮮銀에서는 資金調整法의 施行에依하야 特히 關係事務를處理하기爲하야 支店課內에 資金調整係를 設置하고 行員四名을 任命하엿다

各銀行調整係新設

鮮銀에서는 今回支店課內에 資金調整法의 施行에 備하야 資金調整係를 設置키로 되엿다 殖銀其他各銀行도 大體同樣專任係를 置하고 一般窓口取引에 調整法本旨에 則하야 金融을 行할터인데 이에 對하야 調整의 實을擧하도록 完璧을 期할터이다

自治調整團 認可願提出

朝鮮資金自治調整團은 本十五日의 法令施行에依하야 直時總督府에對하야 第三條의 自主統制認可願을 提出하얏다 財務局에서는 卽日許可할것이라 한다

北支向食糧品 大連에서待機

朝鮮貿易協會大連出張所로부터 十五日本部에 到着한 情報에 依하면 一時各府縣으로부터 關東州에보내는 食糧品出荷는 消極的으로 지내왓는바 九月初旬以來 積極的으로 各食糧品을 大連에 輸送되엿슴으로 各倉庫는 거의 滿腹이되야 日本內地보다도 金利、金融關係도잇서서 投物的出荷를하야 卽賣食糧品은 顯著히 安價를 唱하게되엿다 그 主因되는 點은 北支進出을 目標로하야 大連을 向하고 殺到된것이 輸送關係로가지 못하게된 狀態이다 또 如斯한 北支의 平津向輸出物資는 大連에 待機中일뿐아니라 北支需要目標를 豫想하고 한輸入은 依然히 停止할바를 모르는 現狀이다 近時漸次輸出도 活氣를 呈하야 天津으로부터 相當히 仕入을爲하야 出入하는商人도 漸增하는 狀態이다 一方 北海道廳、大連貿易調査所에서는 朝鮮은 北支貿易進展에 關하야 機先을 制하엿다고 本廳에報告하야 近近 哈爾濱、新京、大連의 三個所에서 北支向商品見本市開催와 佐賀縣도 亦北支進出을爲하야 近近 天津에 調査員을 派遣하야 貿易振興에進出하려는等 朝鮮의當業者도 北支貿易振興에 對하야는 今後相當한 研究과 工夫를하야 이戰爭陣頭에 설 必要가 緊切한바이잇다

沿岸航路 苦境未脫

近海海運의 活況에도 不拘하고 沿岸海運界는 依然濫立競爭인데다가 燃料高其他打擊을 受하야 窮狀을 繼續하야 朝鮮汽船等의 有力會社는 勿論 各港의 中小業者도 困境에 빠저잇서서 近海와 沿岸의 얼마안되는 差이지만 明暗二相으로 갈리어잇다 卽

一、沿岸海運은 燃料(石油)의 騰貴에도 不拘하고 全然運賃의 增收가업다

一、業者의 競爭은 依然하야 元來採算이 못되는데다가 競爭으로더욱 惡化하고잇다

一、이와가튼 業界의 事情外에 最近漁船의 船質改善에 依하야 發動機化한것이 不漁期에 運送에 從事하고잇는 特殊事情이 잇다 따라서 業界의 統制만으로서는 이局面은 打開가 困難하나 其實業界統制도 至難한 對立狀況을 繼續하고잇는 모양이다

北支向은 小型船便利

天津과 朝鮮航路에 就航하는 阿波共同、朝鮮郵船이 事變以來航路를 擴充하고잇는바 現地의 狀勢 卽

一、塘沽港水深狀況

一、天津一帶의 艀의 供給狀勢의 不圓滑

等으로보아 天津向은 中型汽船보다도 小型船 特히 補助帆船等의 『씨-큐린』가 가장 好適한듯하다 現在 朝鮮郵船의 會寧、釜山兩船과가튼것은 荷役에 一週間을 要하는 形便으로 採算的으로 極히 不利하다 이關係로보아 北支向『씨-큐린』를 關係船會社方面에도 目下 考慮中이다

原棉對策에 朝鮮을除外

今回의 棉花輸入制限에 伴한 國內原棉對策에 朝鮮及其他外地를 除外한것이 判明되엿슴으로 在朝鮮各紡績은 協議한 結果 그對策으로서 年內物六萬擔의 直接輸入準備를 行하는同時에 明年以降의 對策을 總督府에 要望하얏는바 이問題는 我國重要產業의 一部門인만큼 關聯되는바 極히넓고 總督府의 自意로 決定키어려운 點이잇슴으로 去十二日 渡東한 穗積殖產局長은 關係方面과 緊密한折衝을 行하고 解決할方針인데 朝鮮側으로서는 年內原棉의不足을 目前에 두고 잇슴으로 直接輸入을 認함을 受할지는 二方法밧게 업고 明年物에 就하야는 朝鮮은 朝鮮으로서의 單獨行動을 取하든지 또는 政府의 對策中에 朝鮮을 包含하는 外에 他途가 업는바 朝鮮內需要原棉은 一年間 八十萬擔 四千五百萬圓乃至五千萬圓에 達함으로 그 形勢는 注目된다

半減狀態 九月中移輸入稅

九月中 朝鮮의 輸移入稅는 輸入統制에 依한 貿易減退로 거의 半減狀態인바 前年同期에 比하야 그 內容은 如左하다 (單位圓)

	九月中	前年同期	比較減
▲輸入稅	三一八、四一二	六六一、一三六	三四二、七二四
▲移入稅	三二〇、四九四	六八八、八六九	三六八、三七五

漁業組合聯合會 第一回總會開催

朝鮮漁業組合中央會는 十五日午前九時부터 府民館에서 第一回總會를 開催하고 各道水產組合代表 各道漁業組合聯合會理事等約百名이 出席하야 먼저午前九時半부터 朝鮮神宮에 國威宣揚祈願式을 擧行하고 午前十時부터 會議에移하야 殖產局長의 訓示(桐川水產課長代讀)에 이어서 會務報告、午前中에 議事를 終하고 午後一時부터 懇談會를 開催할터이다

郵便貯金受拂狀況

全朝鮮郵便局에서 取扱한 九月中의 郵便貯金預入金額은 九百十六萬八千三百九十七圓이오 拂戾金額은 九百五十萬一千五百七十八圓으로서 九月末現在의 預金總額은 四百二萬六千三百四十七人、其總預金額 五千九百二十一萬四千九十圓이며 이것을 前年九月末現在數에 比較하면 預金者數는 八分、總預金額은 五分增加이다

經濟界消息

○林業開發移轉=朝鮮林業開發에서는 本格的事業者와 共히 現東拓別館、事務所가 狹隘하야

開店休業時代

株式界는 全然開店休業狀態로서 閑散의 極인데 東賈가 民間에 퍼지기前에 節約運動이 人氣를 萎縮시키고잇는터로 戰爭이 업슨것이잇다

大保合!

大保合圈內에 入한 市勢는 難伸難押으로 全然動意가 업고 人氣를 挽回하는 大材料의 出現을 期待하고 잇는데 今前場은 그 値動幅이 如左하엿다

◇…東京短期

東新 三十錢幅

鐘新 一圓七十錢幅

◇…大阪短期

東新 五十錢幅

鐘新 一圓幅

◇…朝取短期

東新 十錢幅

鐘新 六十錢幅

以上과가튼 極少幅浮動으로서 이것을 陰極이라할지 또는 數個月間에 亘한 大保合이라할지 大暴落의 前夜라할지 如何間異常치 안흔것이잇섯다

株 依然膠着 不動

前場不變 大保合에 入한 市場은 今朝도 依然 動意가업서 東新百四十二圓四十錢 大新八十一圓丁 鐘新二百三十圓九十錢으로 朝新三十圓二十錢에 保合不變이엇다

後場不動 後場은 東新十錢低、鐘新三十錢低로 保勢裡에 寄付한後 依然積極買氣가업서 閑散裡에 不動이엇다

今日의市勢【十五日】

期米 押目買로 反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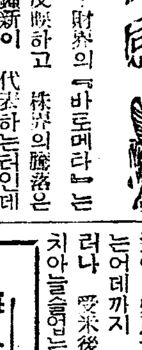
前場反强 今朝는 漸騰으로 阪地初付三十圓九十八錢인 四丁反高를 擴하고 當限은 九圓二十八錢인 昨日同價、先限은 二十八圓三十三錢인 一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七節 一圓○四錢까지의 反高를 作하야 三十九錢까지 跳返하엿스나 此에는 또한 伸惱狀態로 結局 阪地○四錢으로 四十六錢에 是高止場하다

後場堅保 後場은 二十八圓四十四錢인 一丁低로 始場後 一節로 五節까지 四十六錢同價로 堅强裡에 保合이엇다

國債 氣乘薄의 軟調

【東京電話同盟】金融關係其他新規起債가업고 自然場面은 活氣薄으로서 平凡한 立會를 繼續코잇는데 前途는 多大한 事變公債의 流出이 豫想됨으로 氣乘薄中에도 幾分軟調이오 甲號五分佛貨는 五錢引을 示하얏다

市場小感



㊑…財界의 『바로메타』는 株界가 反映하고 株界의 騰落은 東新과 鐘新이 代表하는것인데 東新과 鐘新의 値動幅이 近頃과가티 한심할지경으로 少幅인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하면 財界全體가 未曾有의 統制經濟로 變革되어감으로 前途觀望인 때문 ◆戰勝『인풀레』냐 獨逸가튼 統制經濟로되느냐가 알수업기때문에 이지경

㊍…떠러지자하니 環境의 良好와 政府米買上問題가 걸처잇서 容易치못하고 올으자하니 원악 大豊作의 數字를보고서 더구나 出廻期를 압두고 敢行할수업는일 ◆市勢의 大體는 絶對弱調하야 軟派로서는 更히 作戰할餘力이 업서지며 스나 市勢란 人氣에 反對되는 例가 적지아니한즉 時日이나 기다려보소◆昨今數日을 産地出廻가 幾分減衰한모양가트나 아즉 秋事畢了하지못한만큼 本格的出廻는 時期尙早 (雙山)

當限受渡一考

當地의 當限은 表現의取組가 二萬五、六千石에 不過하나 그裡面에 얼마킴이어잇는 石數는 적어도 倍以上의 數字를 包容하고 잇슬것으로 豫期할수잇다 그러면 此限의 最後一戰이 果然如何히될것인가 자못興味잇는問題인데 賣方의 立場에서 보면 朝鮮의 米作이 稀有의 大豊作을 告하엿스나 接近産地의 態度가 俄然强硬하야 低價에는 賣放하지안는 關係上 稍히出廻旺盛이든 正租가 八錢一厘를 最低로하고 因而買가 至極하야 더욱 渡米의 蒐集을 困難케하므로 賣方의 結局 前途하지 안흐면 아니될境遇에잇스며 買方의 立場에서본다면 渡米의 調達이 如意치못한그點으로보아서는 어데까지 頑張할수잇스나 그러나 受米後의 處分如何를 考慮치아니흘수업는 關係上 買方으로

阪仁擴鞘訂正

關米阪仁의 鞘는 三百丁內外의 大擴鞘이엇스나 昨今에至하야는 二百六十丁內外의 縮鞘를 示하게 되엇다 要하면 三百丁에까지 擴鞘되엇슬때의 米界情勢는 朝鮮은 未曾有의 大豊作으로 秋收期의 暴落을 豫期하엿섯고 日本內地米作은 一時七千萬石說이잇섯스나 結局第一回豫想發表가 六千六百九十九萬石으로 阪은 大減收이엇스므로 强仁軟의 形勢를 繼續하여왓스나 昨今은 朝鮮米의 大體買上說이 擡頭하는 一方으로는 當局으로부터 低價賣의 防止에 共同販賣組合에 對하야 本月初旬부터 制限出廻가 强行되어 産地正租의 出廻는 俄然稀薄하는 반면 當地渡米는 阪地의 反落에도 不拘하고 依然高價를 持續하야 三百丁의 大擴鞘는 結局二百六十丁으로 訂正되엇다 勿論二百五、六十丁의 關鞘는 正常한 鞘로서 此以上으로는 更히 縮少할餘地가업시 阪

正米 京仁外는 低落

京城不變 定期强調이나 正米는 新米壓迫感은 濃厚하야 不變唱이데 商談은 必需側의 小口買拾뿐이다 九仁三等三○、六○ 四等三○、三○ 一等白米三一、四○

仁川保合 依然 出廻不足現狀인바 日本內地의 買氣減인 此際임으로 地場의 積極賣買가 업서서 定期堅調를 바라보면서도 相場은 保合 穀良三○、六○ 三○、三○ 銀坊主三○、八○ 三○、五○ 多摩錦三一、一○ 三○、九○ 一等白米四一、一○ 四○

釜山下落 日氣良好 出廻順調로 今朝當地 正米市場賣物 五千六百叺內外에 達하야 相場은 賣物豐富하고 環境不良로 四十錢가량 下落軟化하얏는데 商內는 朝來人氣良好하야 買氣旺盛하야 一千百餘叺이나되얏다 ㊁穀良三○、八○ 三○、六○ 一等白米一三、七五

▲大邱正米는 秋祭로休會

群山落調 今朝定期小高下返還하파 合船便關係로 買氣益萎縮하야 相場은 二十五錢安 底値不知落調를 示하엿다 ◎銀坊主三等二九、九五 四等二九、七五 一等白米三一、一五

木浦慘落 一般으로 高値警戒가 嚴重하여다가 出廻가 一擧에 段旺盛하게되야 相場은 一擧四十錢安 急落을 演하엿다 ㊁銀坊主三等二九、八○ 四等二九、六○ 一等白米三一、八○

今日財界 十五日

◆米 (單位十錢)　◆株 (單位十錢)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海外經濟 十四日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 銀行券 / 對外爲替 / 金銀價 / 正米 / 正租 / 雜穀 / 棉絲布 / 滿洲商況 / 麥粉 / 油粕 /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仁川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十五日)

[illegible]

京城 益康 金益證券 仁川

仁川期米 仁 案內進呈 紺谷取引店

期米 仁川・海岸通三丁目 東 趙俊鎬取引店